

문재인 "재신임 철회"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제3306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1964.68 (−31.27)

코스닥 688.90 (−1.28)

금리(국고채 3년) 1.64 (−0.04)

환율(원·달러) 1175.00 (+13.00)



추석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중부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0일 서울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 선물세트 등을 구매하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추석도 흙수저 금수저

백화점·마트, 선물세트 매출10% ↑
전통시장, 손님 줄고 매상도 10% ↓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백화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10% 이상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10~20% 감소를 보이며 양극화된 모습이다.

21일 찾은 중부시장의 한 건어물 상인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3개월간 장사를 하지 못했다. 추석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하는데 예년만 못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주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감소 추세다.

20~21일 남대문시장, 가락시장, 중부시장, 독산동 우시장, 청량리 농수산시장·청과물시장 상인 등에게 추석 매출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0~20% 감소했다. 다만 가락시장과 중부시장에서 상품을 도매로 취급하는 곳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손님들이 시장 거리를 채우고 있었지만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적었다.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현재 시장을 채우고 있는 손님들도 3년 전의 3분의 2 수준으로 판매량은 그 이상으로 줄었다.

독산동 우시장의 한 상인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로 인해 체감될 정도로 손님이 크게 줄었었다. 올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량은 조금 더 줄었다"고 전했다.

청과, 정육 등 판매가 겹치는 품목의 매출은 전통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로 옮겨간 모습이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인은 "보시다시피 길에 다니는 손님부터가 예전만 못하다. 사실 (상품가격은) 대형마트와 차이가 없거나 우리가 더 싸다. 다만 손님들의 성향이 갈수록 변하는 것 같다"며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세월호와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다. 내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추석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 이상 늘었다.

홈플러스의 이달 14~20일 저가형 가공식품 선물 세트의 매출은 14.1%늘었다. 건강·미용 상품도 1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속옷·잡화 등 패션 선물 세트의 매출은 39.1%나 증가했다. 롯데마트의 8월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추석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상승했다. 특히 통조림(21.5%), 커피·차(22.1%), 과일(12.6%), 축산(8.6%) 품목들이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백화점의 9월 7~20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신장했다. 건강 상품군이 25% 신장하며 추석 선물세트 매출 신장세를 이끌었다.

청과(24.6%), 주류(22.6%), 한우(13.9%)가 뒤를 이었다. 현대백화점의 9월 4~18일 추석 선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 주요 신장 품목은 정육(약 20%)이다.

최치훙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협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추석선물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도 문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기업의 자본과 전략을 무슨 수로 이기겠는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수공, 상수도관 교체실적
경남 33.8km-전남 0.1km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영남과 호남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국병'인 지역차별에 공기업이 앞장 서온 셈이다.

21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2012~2014년 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개량실적은 경남권이 33.8km에 비해 전남권은 0.1km에 불과했다.

영남과 호남 전체로 비교해봐도 경·남북권은 42.1km인 반면 전·남북권은 3.1km 개량된 것에 불과했다.

이 기간 수자원공사의 전국적인 개량실적은 81.8km다. 영남 지역은 전체 개량실적의 51%로 절반을 넘었고 호남 지역은 3.7%에 불과했다.

특히 영남 지역의 개량사업이 3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호남지역은 2013년 한 해에만 개량사업이 실시됐다. 2012년과 2014년의 실적은 전무했다는 이야기다.

천 의원은 "노후관 급증과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 위험을 감안할 때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적기의 노후관 개량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균등하게 노후관 개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metroseoul.co.kr

The soil spoons in 'hell chosun' are frustrated.

헬조선 흙수저는 좌절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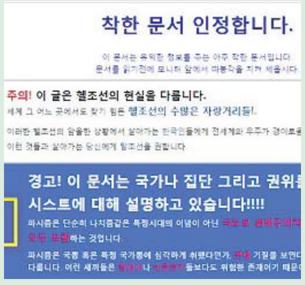
The politicians from the opposition party that announced to form a new party said young generation call Korea hell chosun and manghanminkook.

They justified the reason for the formation of a new party as "They lost their hope and credit for fair compensation".

It is not that the devastation of young korean people is only considered as a big issue to politicians. The labor reform, which is the main priority of the president Geun-hye Park's assignments at the moment, is to create jobs for the young. It is clear that Park is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youth problems.

However, their frustrations are not only cause by unemployment. They are the outputs of organisational contradiction in our society. Such contradiction of how the youth perceive their country is clearly shown in DCinside which is one of the popular online communities.

Korea is to them "it is a beautiful thing for korean businesses to make money with partiotism but if the youth ask the businesses to be more friendly to them then the country consider them as a person with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who are stricken with a victim mentality" They also mention that "our money is country's money, country's money is conglomerate's money, conglomerate's money is chaebol's money and the chaebol's money reachs a record high every year". This is how the Korean youth perceive the chaebol conglomerate.



20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야권 정치인의 입에서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다',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공정한 보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포기는 비단 야권 정치인의 눈에만 중대한 문제로 비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게 목표다. 박 대통령도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포기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물이다.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기업이 애국심으로 돈버는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국민이 기업에 애민심을 요구하면 피해의식에 찌든 반사회성 인격장애자가 되는 국가"이고 "내 돈은 국가 돈이고, 국가 돈은 기업 돈이고, 기업 돈은 재벌 돈이고, 재벌 돈은 매년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는 국가"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신랄한 인식이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

▲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군의 요청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김성수 당 대변인이 대독한 서면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재신임투표를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의 반발과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으로 문 대표는 여전히 험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활약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겸 청와대 정무특보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는 대선 승리 어렵다. 친박(친박근혜계)에도 대선 준비하는 사람 여럿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회

▲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 1만 571곳 중 절반이 넘는 5475곳(51.8%)에서 **임금교섭**이 타결됐다.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 재래시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 대법원이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성추행 사건에 합의를 해줬다면 이 제도를 통한 배상은 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은 5억원 이상이고 평균 부채는 3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골프용품 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을의 전령사 전어잡이 21일 강원 강릉시 남대천 하구에서 한 어민이 가을의 전령사인 전어와 숭어를 잡고자 투망을 하고 있다. 투망을 이용해 숭어를 잡으려면 자치단체에 정식으로 어업 신고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최근 국회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중국 증시 불안과 함께 상승분을 반납한 CCTV주의 반격이 시작된 모양새다.

▲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물량공세가 날로 거세지면서다. LCD 패널 시장은 점차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로 재편돼, LG·삼성 디스플레이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LG전자**가 올 하반기 보급형과 고급형 등 스마트폰을 잇달아 출시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선다.

▲ **포스코**가 철강제품 누적 판매 8억톤을 달성했다. 누적 판매 8억톤은 1972년 7월 포항제철소 1후판 공장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판매한 지 43년 만에 거둔 성과다. 철강제품 8억톤은 중형자동차 9억4000만대,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2만척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대규모 리콜(시정조치)명령을 받은 폭스바겐 모델이 국내에 수입됐는지와 국내 판매 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이번 주 발표한다. 한국 정부(환경부)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검증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백화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10% 이상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10~20% 감소를 보이며 양극화된 모습이다.

▲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이 2020년(예정) 서울 강서구 이마트 부지에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인근 방신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금융사에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와 전화가 설치되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해 입은 손실이 1996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 
쿠바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바나 성당 미사에서 "신은 교회가 가난해지기를 바란다"며 성직자들이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빈자와 약자를 돕는 데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핵심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가 6만명을 돌파하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은 80세 이상 고령자의 수도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한민구 "미군 요청해도 자위대 불허"



북한군의 포격도발 당시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가동한 경기도 동두천 지역의 한 미군부대 모습. /연합뉴스

전작권에는 대통령 허락 필요
미군 요청에도 '거절 가능'
"하나마나한 이야기" 반론도
日은 美병참국가, 국제전 불가피

한민구 국방장관은 21일 미군의 요청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법안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집단자위권 행사 명분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참전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구두상으로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 장관도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사시 한국은 미군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미군의 작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군 작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며 "미군이 앞으로 한반도에 전진배치하고 발진하는 기지의 근거지가 대부분 일본이다. 일본과 한국 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여유도 없이 국제전의 구조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의 전쟁 체계는 미군이 일본을 병참국가로 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급박한 유사시에 일단은 한·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미군의 작전을 원활하게 해 줘야만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이 가능하고, 일본이 참전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반도 유사시 투입이 예상되는 미 7공군은 주일공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미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에서 발진하게 된다. 미군 당국은 지난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한반도 전쟁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CNN이 보도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포격 도발 때 미군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집단자위권의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한국 '미얀마 난민 30명' 수용

'재정착 난민제도'의 일환

유럽에서 난민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태국 난민 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이 심사를 거쳐 한국에 정착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태국-미얀마 접경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제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도입 이후 첫 시행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된 난민은 오는 12월쯤 재정착 난민으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하게 된다. 이후 약 1년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와 취업 교육 등을 받은 뒤 정착 지역이 확정된다. 정부가 미얀마 난민의 정착을 지원키로 한 데에는 유사한 문화 배경과 국내 미얀마인들의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에서는 난민 수용을 놓고 유럽 국가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2일 EU 각료회의와 23일 EU 정상회의를 잇따라 열게 돼 EU 난민 대책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예정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동유럽 국가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독일에서도 난민 문제로 연정에 균열을 보이는 등 내부적인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100세 시대' 벌써 돌입한 일본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가 6만명을 돌파하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경로의 날'을 맞아 조사한 결과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 장수노인이 6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약 7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 100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38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7.9%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도 같은 기간 89만명 증가한 3384만명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전체 인구의 26.7%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의 마스이 유키에 연구원은 "초고령자들은 몸이 약해지는 자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행복을 불러오는 마음가짐도 초고령자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게이오대학 백수종합연구센터의 히로세 노부요시 교수는 "장생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0~70대에서의 생활태도"라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삼가는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를 줄이는 것이 장수의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

문재인 재신임 철회했지만 '먹구름' 여전

안철수 '온정주의' 비판에 "사정 몰라서 하는 말" 일축
천정배 신당 창당 선언에 "호남민심 용납 않을 것"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육군 제28사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기도 연천 태풍전망대에서 포격도발 현황 보고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김성수 당 대변인이 대독한 서면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재신임투표를 철회하기로 했다.

일단 재신임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전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이 야권 분열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당내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내년 총선 승리라는 목표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다.

문 대표는 이날 "어제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의 결의를 존중한다"며 "당원과 국민들 뜻을 묻고자 했으나 당무위원, 국회의원, 당원, 혁신위까지 함께 나서서 애써 주시고 총의를 모아주셨다. 제 뜻은 거둬들이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 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진통 끝에 총의가 모아진 만큼 당 구성원 모두가 같이 존중하고 승복·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내 문제로 국민과 지지자들께 걱정 끼쳤다. 더이상 실망 드리지 않고 달라진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자신에 대한 흔들기가 금도를 넘었다면서 혁신안 통과와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새정치연합은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하고, 더이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분열적 논란을 종식하기로 결의했다.

연석회의의 재신임과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철회에도 문 대표의 앞길은 여전히 험로다. 당장 천 의원의 신당 창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 철회 전 방송에 나와 "창당이 돼야 창당이 되는 것"이라며 "천 의원이 조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천 의원을 대접하는 이유가 호남 민심 앞에서 자신이 몸을 낮추기 때문이라며 "천 의원이 호남 민심을 다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천 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호남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호남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한명숙 총리 판결에 안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자신을 공격한 데 대해서도 "섣불리 온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당치 않은 이야기"라며 "저간의 사정을 모르시고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반기문, 親朴 대선후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윤상현 '김무성 불가론' 놓고 반 총장 염두에 둔 발언 해석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활약했던 이상돈(사진)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겸 청와대 정무특보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는 대선 승리 어렵다. 친박(친박근혜계)에도 대선 준비하는 사람 여럿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21일 방송에 나와 "윤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이라 해명하고 청와대 역시 선을 긋고 나선 데 대해 "그건 당연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보지 않고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 발언 이후 친박 대선 후보로) 3선 의원, 4선 의원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 거론된 사람들을 보면 정치를 좀 읽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웃고 만다"며 "항간의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반 총장이 회원국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사무총장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른바 동유럽의 압제적 지도자들 곁에 서 있지 않았느냐. 과연 그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은 박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총장이 가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이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느냐. 참석한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이 서방국가인지 러시아·중국 변방국가인지 혼동이 될 정도가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반 총장이 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유재중 "사감위, 마사회 압력에 부담금 줄였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중독예방부담금 18억 감액 "건전성 확립 훼손" 비판

한국마사회의 소송 압력에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올해 사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애초 205억원에서 187억원으로 18억원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사감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해 징수한다. 사감위법 개정으로 신설돼 201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감위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매년 도박중독예방사업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2014년보다 25억원 증가한 205억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부담금 감면비율 축소로 인한 불이익 발생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사전통지 없이 감면기준을 변경한 일방적 통보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과 소송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감위는 지난 5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의를 기각했지만 불과 6일만에 마사회의 요구대로 기준을 변경해 18억원이 준 187억원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재의결했다.

유 의원 측은 "한 기관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관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행성 중독예방과 건전성 확립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송병형 기자

朴 대통령, 청년희망펀드 '1호 기부'

2000만원·매달 월급 20%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서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설한 청년희망펀드에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를 마쳤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에 박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했다"며 "박 대통령은 각 수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가입한 청년희망펀드는 KEB하나은행이 처음으로 개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심각한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기부를 한다"며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기부와 함께 청년희망펀드 기부가 시작됨에 따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주요 수석비서관들도 개인적으로 기부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희망펀드 기부는 지난 3월부터 도입된 공익신탁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날 오후 KEB하나은행에서 기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2일부터는 신한·국민·우리은행과 농협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송병형 기자

박기춘,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

朴 의원 "안마의자·시계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하려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9·남양주을·사진)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크게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마의자나 시계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증거 은닉은 기록을 확인해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마의자 등 은닉됐다가 압수당한 물품, 공여자 김씨의 진술, 박 의원 집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2억7000만원과 시가 3000여만원대의 명품시계 2점, 867만원짜리 안마의자 1개 등 3억5812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박 의원의 두 아들과 부인도 롤렉스·IWC·브랑팡·위블로골드·태그호이어 등 고급 시계 9점과 5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 2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했다가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I사 대표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회삿돈 4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협력업체 뒷돈 수수' 전 NH개발 본부장 영장

21일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협력업체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팀장급 직원 성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1~2014년 H건축사무소의 실소유주인 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H건축사무소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친동생이 고문으로 활동한 곳으로, NH개발로부터 NH은행·하나로마트의 각종 시설공사를 사실상 독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 기자



이보다 화려할 순 없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5 코리아 푸드 트렌드 페어 & 케이 푸드 챌린지'에 화려한 장식을 한 케이크들이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 했다면 형사재판 배상명령 적용 안돼"

대법 "합의서 제출해 배상책임 유무·범위 명백하지 않아"

대법원이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성추행 사건에 합의를 해줬다면 이 제도를 통한 배상은 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은 확정하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최모(19)씨에게 말을 걸며 최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1심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피해자 최씨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에 의해 범죄로 인한 피해와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심은 송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하면서도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했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미란 기자

강용석, 법원서 박주신 병역의혹 제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신체검사 조작 주장



방송인 강용석(사진) 변호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나와 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50)씨 등의 재판에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제 주변의 의사들은 사진(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 MRI 사진과 병무청에 제출한 사진)을 겹쳐보면 상식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면 된다"며 "이걸 피하려고 영국에 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가 2012년 2월 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에 나서자 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양씨 등 7명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고발돼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에 뛰어든 이유에 관해 "그 당시 내가 계속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것"이라며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소재지 파악을 지시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가족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 박 시장 측은 법정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최근 '너! 고소'라는 문구의 광고판을 지하철역에 게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품위훼손' 심사에 회부된 데에 관해 "광고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변회에서 하지 말라면 못 하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추석 앞두고 '조류독감' 비상

광주·전남 재래시장서 검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 재래시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 북구와 전남 담양의 전통시장에서 판매중이던 오리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번 바이러스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AI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예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북구와 담양의 가금류 판매업소에 대해 2주간 판매금지 조치했으며 오리 3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해당 판매시설에 오리를 출하한 농장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금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사육농가와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가금류 사육농장에 이어 전통시장 판매시설에 대해서도 일제방역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시설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담하고 사육농장은 축산위생사업소와 해당 시군이 담당해 왔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나주와 강진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오리 1만4300마리를 살처분하고 18일 하룻 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했다.

전남에서는 올해들어 무안, 나주, 구례, 강진, 영암 등 5개 시·군 29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예방 차원에서 총 44농가의 오리와 닭 65만3300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금류 구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AI가 발생해 농가와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세계 대나무 총회 21일 전남 담양에서 5일간 일정을 마친 세계 대나무 총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옥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 해참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관련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3·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첫 재판에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총장은 자신이 결제한 문서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이어 "정 전 총장은 부하들의 결제가 이미 이뤄진 문서에 대해 최종 결제를 한 것"이라며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이 방위사업청에 해당 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업무 협조 지시에 불과하다"며 "(지시가)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0월 H사(社)의 음탐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방위사업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 정모(36)씨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연미란 기자

고검장 출신 변호사, 선임계 없이 활동하다 '적발'

대한변협에 징계 청구돼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가 청구됐다.

2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 등의 법조윤리 준수를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달 14일 최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변협에 요구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는 A씨의 사건 등 7건을 수임하고도 변호사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변호사법 29조는 전관 변호사들이 퇴임 전 함께 있던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게 이 사건들의 수임 내역과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경위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해 이달 말까지 받아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해당 사건들을 수임한 것은 맞지만,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여직원이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북 지역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해 왔다.

/연미란 기자

'체육공단 보조금 횡령' 골프용품업체 대표 영장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골프용품 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주관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이라는 과제를 맡아 총 30억원의 연구개발 사업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씨는 이 중 수억원을 연구개발과 다른 용도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등에게 건넸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www.ywtour.com
제18회
김삿갓문화제
蘭皐
10.9금 -10.11일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김삿갓유적지 일원
주최·주관
영월군
YEONGWOL COUNTY
시선김삿갓유적보전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강원도
KANGWON PROVINCE
High1 Resort
하이원리조트

'디스플레이 코리아'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LCD 시장 단가 하락 지속… 불확실성 증폭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도권 과제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물량공세가 날로 거세지면서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G·삼성 디스플레이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CD 패널 시장은 점차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21일 시장조사기관 IHS테크놀로지에 따르면 LCD 패널은 높은 공정 가동률과 일부 세트 제조업체들의 설비 신설, 계속되는 판가 인하 압박 등이 맞물리면서 마진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4분기에는 '제로 퍼센트 마진'에 도달할 전망이다.

LCD 패널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히 5% 이상의 이익률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올해 1분기 10% 이후 2분기에는 7%, 3분기에는 2%로 급락했다. 4분기에는 0%로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다. 내년에도 공급과잉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향후 글로벌 LCD 패널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제조사들의 빠른 성장 때문이다. 최근 BOE가 10.5세대라인 투자를 결정하는 등 중국은 빠르게 LCD 패널 생산 물량을 늘리고 있다. 2016년 쯤에는 중국의 생산량이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LG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OLED. /LG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의 55인치 투명 OLED.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전문가들은 LG·삼성 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플렉시블·폴더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OLED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가 늦어지면 미래 먹거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은 LG·삼성 디스플레이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OLED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BOE 등이 8세대 라인에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OLED 관련 기술경쟁력과 생산 투자 속도 등을 고려하면 해외경쟁업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같은 차별화된 부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국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한국 정보기술(IT)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LG전자,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승부수

보급·프리미엄 폰 잇따라 출시

LG전자가 올 하반기 보급형과 고급형 등 스마트폰을 잇달아 출시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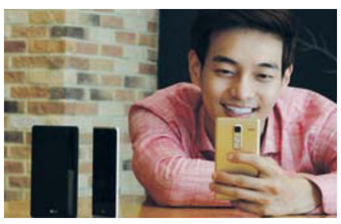
LG전자는 21일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30만원대 보급형 메탈 스마트폰 'LG 클래스' 출시를 시작으로 10월에는 'G' 시리즈를 뛰어넘는 슈퍼 프리미엄폰을 선보일 예정이다. 슈퍼 프리미엄 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반면 국내 시장 수요가 프리미엄에서 중저가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급형폰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가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선보인 'LG클래스'는 좌우 양쪽이 둥글게 마감 처리된 5인치 곡면 글래스와 디자인을 적용했다. 스마트폰 위아래 메탈 표면에 후면 메탈과 다른 톤의 색상을 입혀 세련미를 더했다.

특히 카메라는 프리미엄폰인 'G4'와 동일한 이미지센서를 적용해 전면 800만화소 후면 13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

조성하 LG전자 MC한국영업FD 부사장은 "'LG 클래스'는 합리적 가격에 프리미엄급 요소를 두루 갖춘 실속형 제품"이라며 "4분기에도 경쟁력 있는 신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가 10월 공개하는 슈퍼 프리미엄폰은 'G시리즈'보다 큰 QHD(Quad HD, 2560×1440)급 5.7인치 대화면에 좌우 측면은 메탈 프레임이 적용됐고 후면은 플라스틱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기능은 듀얼카메라와 디자인이다. 듀얼카메라는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원근감과 색감을 살려 더욱 입체적인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LG전자 보급형 스마트폰 'LG클래스'

LG전자 관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하드웨어 성능은 제조사별로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을 뛰어넘는 디자인을 선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LG전자가 구글과 함께 준비한 차기 레퍼런스 스마트폰 '넥서스5X'(가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말 공개 예정인 이 제품은 구글의 새로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안드로이드페이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LG전자의 올 하반기 신제품이 향후 휴대폰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혜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 스마트폰 사업은 신모델 라인업을 확인한 이후 경쟁력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이나 애플 등 경쟁사보다 브랜드와 판매량은 낮지만 새로운 넥서스폰과 프리미엄 모델 출시로 전체 평균판매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실속형 LG 울트라 PC 3종 출시

신학기·명절 맞아 라인업 확대

LG전자 실속형 울트라 PC 신제품을 출시하며 국내 슬림 노트북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신학기·명절 등 노트북 성수기를 맞아 매력적인 가격과 세련된 디자인의 LG 울트라 PC 3종(모델명: 13U360-EU1CK, 13U360-LT1MK, 13U360-LT1SK)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제품 3종은 초경량 노트북 '그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계승했다. LG전자는 13.3형 화면과 19.6mm 두께의 초슬림 디자인으로 휴대 편의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SSD나 eMMC 등 전자식 저장장치를 적용해 무게는 줄였고, 작업 속도는 높였다. LG전자는 인텔 쿼드코어 프로세서 기반의 팬리스 설계로 CPU의 열을 식히기 위한 별도의 팬이 없어 무게뿐 아니라 소음도 줄였다.



LG전자 모델이 21일 LG트윈타워에서 LG전자 실속형 LG 울트라 PC 3종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는 다양한 편의 기능도 탑재했다. 전원을 누르지 않고도 노트북을 열면 자동 부팅되는 오픈부팅, 작은 글씨를 읽을 때 눈의 피로도를 덜어주는 리더 모드,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얼굴 인식을 통해 컴퓨터에 접속하는 페이스인 등 차별화된 편의 기능을 적용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고객이 eMMC를 탑재한 제품(13U360-EU1CK)을 구매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인 원드라이브(OneDrive)의 100GB(기가바이트) 용량을 무상으로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해상도·중앙처리장치(CPU)·저장장치 등의 사양차이에 따라 52만원·89만원·99만원 등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조한진 기자

SK브로드밴드, 세계 최초 IPTV 8K 슈퍼 UHD 서비스 시연

풀HD 16배·4K UHD 4배 화질
멀티뷰·앵글 서비스도 공개

SK브로드밴드는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서울 상암동에서 열리는 'DMC 페스티벌(9월21일~10월10일)'에서 8K 슈퍼 UHD IPTV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방송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해상도는 풀HD는 약 200만 화소, 4K UHD는 830만 화소 수준이다. 8K 슈퍼 UHD는 3300만 화소로 더 선명한 고품질의 화면을 제공한다.

8K 슈퍼 UHD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NHK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시험방송을 진행 중이다. IPTV에서는 이번에 SK브로드밴드가 세계 최초로 8K 슈퍼 UHD 서비스를 시연했다.

SK브로드밴드는 8K 슈퍼 UHD IPTV 서비스 시연을 위해 SK텔레콤이 개발한 압축기술인 8K HEVC 인코더 기술을 적용했다. 삼성전자의 110인치 8K TV 확보하고 8K 방송 콘텐츠를 자체 제작했다.

또 SK브로드밴드는 이번 'DMC 페스티벌'에서 8K 슈퍼 UHD IPTV 서비스와 함께 UHD 화면 내에 다양한 화면를 띄워 보는 멀티뷰, 멀티앵글 서비스 등의 UHD 응용기술도 선보였다

UHD 멀티뷰 서비스는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인코딩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 UHD 멀티뷰 엔진 기술을 적용했다. 사양이 낮은 셋톱박스에서도 사용자가 화면을 자유롭게 선택해 고품질의 드라마, 스포츠 등 동시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곧 상용화 할 계획이다.

UHD 멀티앵글 서비스는 8K 컨텐츠 내에서 원하는 영역을 사용자가 검색해 확대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이다. 쇼, 스포츠 경기 등의 영상에서 좋아하는 가수, 선수 등의 영상만 골라 확대해 시청할 수 있다.

/조한진 기자

292마력·제로백 5.1초… 레이싱 DNA 장착

폭스바겐 '골프R' 출시

스포츠카 마니아 겨냥 모델 연말까지 120대 판매 목표

폭스바겐코리아는 골프의 고성능 스포츠카 모델 '골프R'을 21일 출시했다.

골프R은 압도적인 성능으로 무장했다. 2.0 TSI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292마력, 최대토크 38.7kg·m의 힘을 낸다. 골프GTI가 장착한 2.0 TSI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211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날 폭스바겐은 서울 논현동 인터와이어드 스튜디오에서 출시행사를 열고 전국 36개 전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김우성 폭스바겐 부장은 "골프R은 스포츠카 마니아 중심으로 연말까지 120대 판매를 예상한다"며 "2008년 7월 골프R의 기반인 R32 모델이 판매 전에 전량계약 됐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골프R의 가격은 5190만원이다. 폭스바겐 측은 골프R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물량도 적게 잡았다고 전했다. 골프R은 독일 바르메나우에 위치한 R GmbH에서 생산된다.

폭스바겐은 골프R 출시를 통해 해치백 라인업을 늘린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골프의 판매량은 골프 2.0 TDI 모델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골프 2.0 TDI는 올해 1~8월 4728대를 판매해 수입차 누적판매 2위에 올랐다.

골프R에는 6단 DSG 자동변속기가 탑재됐다. 복합연비는 9.9km/ℓ(도심 8.8km/ℓ, 고속 11.6km/ℓ)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은 5.1초다. 주행모드인 '레이스'를 선택하면 엔진의 반응 성능이 향상된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R. /손진영 기자 son@

업계에서는 골프R이 BMW MINI(미니) JCW, 메르세데스-벤츠 A45 AMG 4매틱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 JCW는 6월 출시 후 8월까지 90대가 판매됐다. 벤츠 A45 AMG 4매틱은 2월 출시 후 8월까지 120대가 판매됐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폭스바겐, 美 리콜모델 국내 수입여부 주중 발표

"수입모델 엔진세팅 달라" 獨 본사에 공식 확인 요청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대규모 리콜(시정조치)명령을 받은 폭스바겐 모델이 국내에 수입됐는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이번주 중으로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법인이 리콜을 받은 직후 독일 본사에 한국에 해당 모델이 수입됐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요청을 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미국에서 리콜된 모델들은 내수용으로 생산되고 국내로 수입되는 모델들은 엔진세팅이 다르다"며 "한국의 경우는 유럽 기준으로 엔진이 세팅돼 수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입된 모델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며 만약의 사태와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공식적인 확인요청을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파사트.

아우디코리아 측은 "A3는 미국·한국 모두 독일에서 수입한다. 폭스바겐코리아와 별개로 독일 본사에 확인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현 시점에서는 확인해 줄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도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미국에서 리콜명령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모델의 배출가스 검사를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이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폭스바겐과 아우디 상표의 디젤 승용차에 '차단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차량 정기검사·테스트 시 작동돼 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실제 주행 때 배출하는 산화질소의 양이 차량검사 때보다 약 40배까지 많았다는 게 EPA 측의 설명이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형 제타·비틀·골프다. 파사트는 2014~2015년형이 해당한다. 아우디 A3는 2009~2015년형까지다.

/정용기 기자

대한항공 '사랑의 쌀'로 한가위 情나눔

10kg 쌀 275포 기증

대한항공은 21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추석을 맞아 '사랑의 쌀'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호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과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항공은 강서지역 이웃들을 위해 10kg 쌀 275포를 강서구청에 기증했다.

기증된 쌀은 지역 내 관할 복지시설 15곳을 통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사랑의 쌀' 후원은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대한항공은 매년 강서지역 내 어려운 이웃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설과 추석에 쌀을 기증하고 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이 후원한 쌀 규모는 62톤으로 1억8000만원어치에 달한다.



21일 강서구청에서 이병호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오른쪽)과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사랑의 쌀' 기증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향후에도 나눔 경영을 실천해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기자



귀성길 차량 무상점검 받으세요

현대·기아차

고속도로 휴게소 35곳 장거리 운전조건 점검

현대·기아자동차는 추석을 맞아 25~28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35개 지점에 서비스코너를 마련하고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귀향길은 25일부터 26일까지 ▲귀경길은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현대차 23개소, 기아차 12개소의 서비스 코너를 운영한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차량 입고 시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 장거리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들을 점검하고 ▲각종 오일류, 와이퍼 블레이드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한편 ▲필요 시 항균·탈취 서비스, 스캐너 점검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고객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신속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음료와 차량 브로셔 등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의 치악휴게소 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현대모비스와 합동으로 오디오 점검과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 사고발생 시 사고조치와 견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차량은 직영서비스센터와 인근 서비스 협력사 등에 입고해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필요 시 차량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석 특별점검 서비스의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현대차 www.hyundai.com / 기아차 www.kia.com) 또는 블루멤버스 홈페이지(bluemembers.hyundai.com)와 Q멤버스(q.kia.com)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SKT, 헤드셋도 되는 '스마트 보청기' 선봬

'스마트 히어링 에이드' 경도 난청자 대상 출시 국내외 시장 호응 기대

SK텔레콤은 블루투스 헤드셋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도(經度) 난청자 대상의 스마트 보청기 '스마트 히어링 에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보청기의 핵심 기술인 광범위 압축 기술과 피드백 제거 기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피팅 기술 등을 활용해 사용자가 자신의 청력 상태에 최적화된 음성과 음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해 청력 상태를 측정하거나 병원에서 검사한 청력 시험 결과를 입력해 보정 정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의 상태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 사용자들이 보청기의 소리 조정을 위해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실내, 야외, 대중교통 등 각기 다른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보정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파수 세부 조정을 통해 선호하는 음향 설정도 가능하다. 스마트 히어링 에이드는 식약처(KFDA) 뿐 아니라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도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

한편 스마트 히어링 에이드는 청력 보정 기능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헤드셋 기능도 충실히 구현했다. 스마트 라이프를 즐기는 경도 난청 실버 세대는 물론, 일부 청력이 좋지 않은 젊은 세대로부터도 호응이 기대된다.

스마트 히어링 에이드는 이 같은 독창성으로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제22회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차별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받아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박철순 SK텔레콤 컨버전스사업본부장은 "생활소음의 증가와 고령화 진입 등으로 국내외에서 난청 환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고품질의 대중성 보청기인 스마트 히어링 에이드가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스마트 히어링 에이드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 앞마당에서 MINI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다.

MINI 플리마켓, 주말에 4000명 참석

'컨트리맨 파크레인' 첫 공개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는 올해 벼룩시장(Flea Market) 행사에 4000여명이 참석하며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로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THE-K)호텔 앞마당에서 열린 MINI 플리마켓에는 50개 팀 셀러들과 MINI의 파트너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양한 물품을 자신의 MINI 차량 트렁크에 싣고 와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했다.

사측은 하이엔드 모델인 'MINI 컨트리맨 파크레인'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서 모인 기부금과 물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BMW 코리아 미래재단에 전달된다.

/이정필 기자 roman@

SKT, 추석 대비 특별소통 상황실 운영

LTE 데이터 24% 증가 전망 8일간 기지국 용량도 증설

SK텔레콤이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소통 상황실을 운영한다.

SK텔레콤은 22~29일 8일간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는 등 연휴를 맞아 급격히 증가하는 이동통신 트래픽 수용을 위한 '특별소통대책' 수립·관리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추석 연휴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25일 오후에 트래픽이 몰리고, 시도호 기준으로 평일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LTE 데이터의 경우 연휴기간 평일과 비교해 2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속도로·국도 등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평시 대비 200% 이상 트래픽 증가가 예상돼 고객들의 통신 편의에 영향이 없도록 밀집 예상지역의 시스템 용량 추가 증설·트래픽 분산 등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또 연휴기간 T맵 사용량이 평소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용량을 증설한다. 고속도로 나들목, 분기점 및 주요 휴게소 등 상습 병목 정체 구간 위주로 이동기지국도 운영한다.

이밖에 추석 연휴를 틈타 발생 가능한 '추석 인사', '선물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제의 방지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문자 메시지 패턴으로 스미싱 여부를 판단하는 '스마트아이(SmartEye)' 시스템을 통해 스미싱 문자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탐지해 자사 고객 보호에 나선다.

한편 특별소통 관리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투입되는 SK텔레콤의 구성원은 8일간 총 2000여 명이다.

/조한진 기자



SK텔레콤 관계자들이 서울역에서 기지국 용량 증설 작업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케미칼, 바이오에너지 사용률 50% 달성

SK케미칼은 21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을 통해 1년간의 '지속가능경영' 성적표를 공개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계획을 제시하는 보고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SK케미칼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울산공장의 탄소중립 수치는 33%다.

이는 울산공장 내에서 배출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양을 친환경 활동으로 대체했다는 의미다.

SK케미칼은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매스 자원을 주원료로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SK케미칼 울산공장이 사용한 바이오매스 사용 비중은 전체 에너지원의 절반이 넘는 50.7% 수준이다.

사무동과 연구소가 입주한 친환경 사옥 '에코랩'도 지속가능 경영에 일조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전력 절감율 35%, 수자원 절감율 15%, 온실가스 절감율 29%의 성과를 냈다.

나눔을 통해 사회적책임을 다하려는 활동도 보고서를 통해 소개됐다.

SK케미칼은 1년간 총 1만4919시간을 봉사 활동에 투자했다.

SK케미칼 측은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친환경 생산과 친환경 제품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고객들이 에넥스 서울 논현직매장에서 LG유플러스의 홈IoT를 체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U+, 에넥스와 손잡고 IoT 적극 협력

LG유플러스가 홈 사물인터넷(IoT)의 대중화·보편화를 위해 가구업체 에넥스와 손을 잡는다.

LG유플러스는 에넥스의 서울 논현직매장에 홈IoT 고객 체험존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3층 인기상품 코너에 마련된 홈IoT 고객 체험존에는 가스락, 맘카, 열림감지센서, 에너지미터, 온도조절기, 플러그, 스위치 등 LG유플러스의 7종 상품이 설치돼 있다.

고객들은 논현직매장에서 홈IoT 상품을 만져보는 등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IoT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입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내까지 목동, 방배, 잠실직매장은 물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에넥스 매장에도 홈IoT 체험존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2020년 IoT 세계 1위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은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가입 신청이 쇄도하면서 홈IoT 서비스 출시 40일 만에 가입자 2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IoT 전국 설치 서비스는 물론 AS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한진 기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株 상승세

기존 어린이집, 연말까지 완료… 신규는 설치해야 '인가'
CCTV 제조업체 ITX시큐리티·경봉·넥스트칩 등 상승

최근 국회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본격 논의되면서 이들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한 바 있다. 지난달 중국 증시 불안과 함께 상승분을 반납한 CCTV주의 반격이 시작된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이 반영됐다.

우선 어린이집은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3개월 유예 받아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된 다음 거래일인 21일 코스닥시장에서 CCTV 전문 제조업체인 ITX시큐리티와 경봉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아 직전 거래일 대비 각각 525원(29.91%) 오른 2280원, 670원(29.91%) 상승한 29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더불어 CCTV 제조와 시스템 업체인 넥스트칩 5.02%(6490원), 코맥스 3.17%(5860원), 코콤 1.47%(1만7200원), 아이디스 0.78%(1만9200원) 등도 동반 상승 마감했다.

이들 CCTV 관련주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에도 실적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올랐었다.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거래일인 5월 4일 코맥스 주가가 전날보다 9.33% 오른 2만4600원에 거래를 마치는가 하면 코콤 7.26%(1만6250원), 아이디스 4.64%(1만6900원), ITX시큐리티 2.41%(2970원), 경봉 1.51%(3030원) 등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앞서 인권침해 논란과 예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된 바 있다. 따라서 CCTV 관련주도 올 들어 등락을 거듭해오다 중국의 증시 불확실성이 확산된 지난 8월 연저점을 찍는 등 급락하기도 했다.

CCTV 관련업체의 앞날도 밝은 편이다. CCTV 설치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노인·장애시설 등 복지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며 지능형 CCTV를 이용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도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CCTV는 빅브라더 탄생의 출발점이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라며 "CCTV시장은 사생활 침해의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의 좋은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성장률이 18.1%에 달할 정도"라며 "국내 IT시장 규모가 세계 IT시장의 10%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 여력도 상당히 큰 편"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노사간 제도통합·노조 통합 합의 (왼쪽부터) 이재진 NH투자증권노동조합 위원장,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윤봉석 NH농협증권노동조합 위원장이 양 노조의 임금과 사제도를 통합하기로 21일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제공

한화투자證, 3년만에 대졸 신입채용 실시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제도' 도입 예정

한화투자증권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에 동참하고자 3년 만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과거 대졸 신입사원을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해 수요부서에 배치하는 방식에서 이번에는 사업부별로 각각 자기 부서에 필요한 인재를 따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인사부서 담당자, 부서장, 임원만 참여했던 채용심사에 신입사원의 직속상사가 될 대리와 과장급 직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원자들은 우선 대리와 과장급 직원의 심사를 받은 뒤 인사부서 담당자와



부서장 등 임원 심사를 받게 된다.

신입사원은 '입사 후 3개월'의 인턴십 기간 동안 자신을 선발한 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그 이후 9개월 동안에는 어느 부서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해볼 기회를 갖는다.

이처럼 1년의 직무경험 과정을 마친 신입사원은 원하는 부서에 지원하고, 각 사업부도 원하는 직원 명단을 인사부서에 제출해 조율을 통해 최종 부서가 정해진다.

한화투자증권은 직무별 연봉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신입사원 초봉 역시 각 사업부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은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자신의 대학 학부 학자금대출 잔액을 회사에 밝히고 5년의 근무기간을 거치면 회사가 4000만원 한도 안에서 대출 잔액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철학에 맞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채용해 장기적 성장동력을 보강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배 기자

주가 하락에도 수익 실현 '신용대주' 시행

유안타證, 최저이율 연 7.5%… 대주기간 최장 30일

유안타증권은 오는 21일부터 고객들이 유안타증권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상환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용대주(Short Sell)'를 시행한다.

신용대주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유안타증권으로부터 빌려 시장에 매도한 후 일정기간 내 해당주식을 다시 매수해 이를 상환하는 구조다. 여기서 발생한 상환차익을 수익으로 얻는 거래 방식이다.

주가 하락시 수익 실현이 가능해 단기 변동성 투자로 수익 창출을 원하는 투자자 또는 주가 하락과 상승 양방향에서 모두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신용대주 대상주식은 유안타증권이 보유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주식 중 대주 가능종목으로 정한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대주 이율은 최저 연 7.5%며 종목별 차등이율이 적용된다. 대주기간은 최장 30일까지 가능하며 개인 최대한도는 5억원이다.

유안타증권의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신용약정을 등록한 고객은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며 지점 또는 홈페이지, H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대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전국 각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2600)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2015 대신 불스 실전투자대회' 참가 모집

대신증권은 21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2억334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2015 대신 불스(Bulls) 실전투자대회'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스 투자대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투자문화 확대를 위해 대신증권이 매년 개최하는 실전투자대회다. 올해는 달러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주식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메인리그와 이벤트리그로 구분된다. 메인리그는 참가자들의 예탁자산규모에 따라 5000만원리그, 2000만원리그, 100만원리그로 나뉜다. 이벤트리그는 미국주식리그와 모바일리그로 구성돼 있다.

각 리그 1위에게 총 1억3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자들은 대회기간 동안 세 번의 재도전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실전투자대회는 오는 12월 4일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본 대회는 다음달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대회 참가는 대신증권 각 영업점, 홈페이지, HTS 및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김보배 기자

고령자·장애인 금융상담 전용창구 개설

금감원, 금융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임신질환 치료비 보장성보험도 출시

앞으로 금융사에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와 전화가 설치되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도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인 1300만명에 달하고 만성질환 보유자나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령층을 위해 금융사 대형점포 등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가 설치된다. 고객이 거래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한 후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전용전화'가 개설된다.

금감원은 고령 임신이 늘어남에 따라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정상분만과 난임치료비는 제외)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객을 위해선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21일 금감원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마련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점포를 방문할 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장애인에게 근거없이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위해선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사들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던 예금-대출 상계 조치를 앞으로는 워크아웃 '확정자'에게 한해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같은 특수한 여건에 있는 소비자의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로 가칭 '함께가는 참사랑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후퇴

지난 금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소식에 급등한 코스피가 다시 1960선으로 밀려났다. 금리 동결이 오히려 추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탓이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1.27포인트(1.57%) 내린 1964.68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1985억원 내던지며 나흘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105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만이 255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했다. 전기전자가 2.93% 내려 큰 폭으로 떨어졌고 운수장비(-2.65%), 비금속광물(-2.60%), 철강금속(-2.55%) 등도 낙폭이 컸다. 금융업, 유통업, 서비스업, 은행 등도 약보합권을 형성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하락 종목이 우세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하향 조정에 3.36% 하락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 등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신한지주(0.12%)와 KB금융(0.57%), LG(0.34%) 등은 소폭 올랐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8포인트(0.19%) 내린 688.90로 약보합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18억원, 123억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 홀로 674억원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와 통신서비스가 3%대 급락했고 출판매체복제도 2.46% 내렸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다음카카오와 CJ E&M 등이 약보합 마감했고 파라다이스, 컴투스 등은 강보합권을 형성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KEB하나은행, 청년희망펀드 개시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개시된 2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영업2부점에서 행원이 펀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그리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22일부터 펀드를 개시한다.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해당 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기부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대우조선때문에 2000억 손해

5년동안 지분가치 하락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가치 하락으로 5년 동안 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해 입은 손실이 1996억원에 이른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조(兆)단위 손실을 발표한 2015년에만 99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매손익을 살펴보면 2011년 395억원 손실, 2012년 256억원 손실, 2013년 258억원 이익, 2014년 613억원 손실, 2015년(8월 기준) 99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 15일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는 하한가(-30%)로 떨어졌다. /차기태 기자

산업은행 퇴직자, 또 다시 '재취업' 논란

5년내 퇴직자 전원 재취업

산업은행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43명이 전원 산은 자회사, 투자대출 회사 등 거래기업에 재취업했다"며 "이중 35명은 한달 이내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재취업한 임직원 중 대우조선 CFO도 포함됐다"며 "산업은행 임직원의 이직 직전·직후 1개월간 추가로 신규 대출하거나 대출연장 등을 한 기업이 16곳이나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중부지역 본부장이 강남순환도로 부사장으로 이직한 다음 달인 2013년 3월 산업은행은 이 회사에 2억원을 투자하고, 이틀 뒤 38억원을 대출했다. 올해 2월 산업은행 강북지역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포천민자발전은 최근 80억원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오 의원은 "산은은 국책은행 역할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서도 5년 동안 관련 기관 재취직이 안된다고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신의 직장인 산은에서 재취직하는 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밝혔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43명이 다 재취직한 것은 공감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기택 산은 회장은 "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산은 퇴직자의 재취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전문성이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한 제도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치솟는 아파트 전세가… 아파텔 제2전성기

<주거형 오피스텔>

78개월 고공행진에 반사이익
기흥역 더샵, 5일 만에 완판
로얄층엔 1000만원 웃돈도

전세가가 78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소위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지만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을 갖춘 곳이다. 신혼부부는 물론 4인가족까지도 살수 있다.

과거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같은 평면을 갖췄다고 하지만 발코니가 없어 상대적으로 주거공간이 작았다. 또한 취득세도 아파트(1.1%)에 비해 높은 매매가의 4.6% 가량을 내야 했다.

월세를 줄 경우 소형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률이 낮았다. 소형 오피스텔에 비해 분양가가 비싼 반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한정적이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정보

단지명	전용면적(㎡)	가구수	시기	시공사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19~74	434	분양중	대우건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84	238	분양중	포스코건설
광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	72~84	230	9월	중흥토건
동탄 린스트라우스 2차	미정	332	11월	우미건설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	59~84	226	9월	대우건설
광명역 데시앙	미정	1122	하반기	태영건설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야경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주거형 오피스텔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주거형 오피스텔 '문래 파라곤'은 올해 초 2억9000만원이면 거래가 가능했지만 현재 201동 전용면적 85㎡의 경우 3억2000만원 이하의 매물은 찾아볼 수 없다. 전용 87㎡의 경우 3억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문래 현대홈시티2차'도 마찬가지다. 올 초 전용 85㎡의 경우 2억2000만원선에서 거래됐지만 현재는 2억4500만원까지 올랐다.

기존에는 매물이 나와도 찾는 수요가 없어 거래량이 적었지만 이제는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등 상황이 역전됐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는 지난달 견본주택 문을 연지 일주일 만에 70% 가량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해 말 공급에 나섰던 위례 한화 오벨리스크 주거형 오피스텔도 현재 100% 계약이 완료됐다.

올 초 공급에 나섰던 주거형 오피스텔 '위례 우남역 KCC웰츠타워'도 초반 분양에 다소 고전했지만 현재 계약률 98%를 기록 중이다.

포스코건설이 지난달말 선보인 '기흥역 더샵'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 시작 후 5일 만에 100% 계약을 마쳤다. 6월 초 분양한 '킨텍스 꿈에그린' 오피스텔 전용 84㎡도 계약 사흘만에 분양이 완료됐다.

대우건설이 지난달 공급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오피스텔 전용 59㎡의 경우도 로얄층을 중심으로 1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신규 물량도 꾸준히 공급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에서 8호선 우남역(예정)과 트램(예정) 정거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위례신도시 일반상업3블록 1-2, 1-3부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하 6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4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의료시설(138실)이 들어선다. 지상 5층~19층은 오피스텔(전용 19~74㎡, 434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투룸과 4인 생활까지 가능한 쓰리룸으로 구성됐다. 일부 가구는 2면 개방형 구조를 선보여 자연환기는 물론 조망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에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84㎡, 238실 침실 3개와 욕실 2개, 주방 다용도실과 안방 드레스룸이 마련돼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광교와 동탄2신도시에서도 주거형 오피스텔 물량이 공급된다.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최근 '광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광교신도시 C2블록에 위치하며 전용 72~84㎡, 230실 규모다.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역(가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수원 권선 꿈에그린' 견본주택 오픈

한화건설
59~84㎡ 2400가구 규모
첫계약 보증금 10년간 동결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최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93-1번지에 민간택지공급 아파트(뉴스테이) '수원 권선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5~20층, 32개 동, 전용면적 59~84㎡ 240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160가구 ▲74㎡ 928가구 ▲84㎡A 364가구 ▲84㎡B 746가구 ▲84㎡C 94가구 ▲84㎡D 108가구다.

특별한 청약자격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신개념 임대 주택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최초 계약 시 보증금이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으며 월임대료는 연간 상승 5% 이하로 제한된다. /박상길 기자



봉사단 참여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10개월간 경영·건설분야 미래설계 지원

현대건설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2기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은 최근 서울 도봉구 도봉숲속마을에서 인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봉사단은 경영·이공분야 직원과 건설산업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이 함께 학업진행과 진로설계를 도와주는 교육장학 활동이다.

현대건설은 교육장학 전문 사회복지기관인 '아이들과미래'와 함께 멘토직원 교육, 전문강사 강연, 멘티 청소년 진로·적성검사를 시행한 뒤 10개월 간의 멘토링 활동 방향성을 설정했다.

GS건설, 내달 전국서 7630가구 물량공세

서울·오산·화성 등 7개 지역
1000가구 안팎 대단지 분양

GS건설(대표 임병용)은 10월 서울과 오산 등 전국에서 7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GS건설은 10월 화성의 신동탄 파크자이1차를 시작으로 전주 에코시티자이, 오산세교자이, 청주자이, 서울숲리버뷰자이, 마포자이3차, 동천자이까지 7개 프로젝트 7630(일반 63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7개 분양 단지 모두 주택 1000가구 내외의 대단지인 점이 특징이다.



신동탄파크자이1차 조감도. /GS건설 제공

단지별로 10월 말 분양 예정인 마포자이 3차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대 염리2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927가구 중 일반분양은 436가구로 구성되며 단지 반경 1㎞ 내외에 공덕역, 애오개역, 대흥역, 이대역이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밤섬자이, 청암자이, 공덕자이, 공덕파크자이, 마포자이 1·2차 등과 함께 대규모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한다.

10월 초에는 경기도 화성시 능동 624-4번지 일원에 신동탄파크자이 1차를 982가구 규모로 분양한다. 1호선 서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출 퇴근시간 급행열차 정거장인 병점역과 2㎞ 거리로 비교적 가까우며 KTX 수서~평택선이 개통하면 인근의 동탄역에서 수서역(강남)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

GS건설은 10월 말 청주에 첫 자이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1500가구로 구성되며 청주시의 신주거단지로 개발되는 방서지구에 있다.

전주에코시티자이도 지난 2006년 입주한 송천자이 이후 약 9년만인 10월 중순에 들어선다.

전주시가 인구 3만명 규모의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조성하는 '에코시티'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4층 9개동 640가구 규모로 10월 중순 분양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신세계, 방신 재래시장 도산 외면하나

복합쇼핑몰 입점시 인근 150여 점포 도산 우려
롯데몰 입점 후 공항시장 300여 점포도 문 닫아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이 2020년(예정) 서울 강서구 이마트 부지에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방신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시 마곡사업단과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이마트 부지 CP-4구역에 3만9050㎡ 규모로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에 이마트와 함께 신세계백화점을 지어 복합몰로 구성하는 등 이 일대에 신세계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며 마곡역에서 몰까지 지하로 직접 연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경기도 삼송과 의왕, 하남, 인천 청라 복합몰 등 수도권 5개 벨트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는 5·9호선 김포공항역 롯데 김포몰과 지하철로 두 정거장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아직 착공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방신재래시장 상인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1년 롯데몰 입점시 공항시장과의 거리가 1km 수준에 불과해 300여 개 점포가 수년새 도산했다"며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입점 위치와 방신시장과의 거리도 1.3km 수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인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항시장처럼 우리 시장 인근 점포 150여 곳 뿐만아니라 인근 소상공인까지도 모두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대책은 전혀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마곡지구 토지매각 현황도. /서울시 제공

상인들은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5일 강서구에 자료 요청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중 강서구 6개 연합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요청할 예정이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처럼 나서는 이유는 앞서 롯데몰 입점으로 인근 공항시장이 초토화됐기 때문이다. 롯데몰 입점으로 타격을 받았던 공항시장은 지난 7월에는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아예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해당 부지의 시공사인 대림산업(대표 이해욱)은 7월 10일 강서구 방화동 공항시장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림산업은 776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207가구와 오피스텔 218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 일대인 마곡동과 가양동 인근 110만9000여 평의 부지에는 내년까지 아파트와 기업, 상업시설과 공원 등이 건설되며 3만4000여명의 입주가 계획돼 있다. LG, 이랜드, 롯데,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이화의료원 등 대기업과 12개 중소기업 입주가 확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아직 착공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신세계 측에서 이렇다할 상생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인 측과는 지난 15일 전통시장 담당 과장이 간단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 현황을 논하면서 신세계몰 입점 관련 방신시장 대책에 대해 서도 잠깐 언급은 됐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는대로 신세계 측과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꾸리고 상인과는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 측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연락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형지, 창립 33주년… 그룹 통합 가속화

통합 기업이미지 공개 등
2020년 매출 3조원 달성

패션그룹형지(회장 최병오)가 21일 창립 33주년을 맞아 통합 기업이미지(CI)를 공개했다.

패션그룹형지는 그룹 통합을 가속화하고 2020년까지 매출 3조원 규모의 의류업체로 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션그룹형지는 21일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계열사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합 CI는 행복을 상징하는 '해피플라워'(Happy Flower)를 따뜻한 열정과 개성을 의미하는 주황색으로 나타내고 글로벌

hyungji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기업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형지의 사명을 영문 'hyungji'로 표현했다.

패션그룹형지는 계열사 이름 앞에도 '형지'를 붙인다.

우성I&C는 형지I&C, 에리트베이직은 형지엘리트, EFC(에스콰이아)는 형지에스콰이아로 이름을 바꾸고 바우하우스 등 유통부문은 형지쇼핑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형지는 패션·유통 부문에서 고객에게 행복을 전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뜻에서 '해피플라워 투 유'(Happy Flower To You)를 비전으로 정하고 ▲R&D(연구·개발) 강화 ▲O2O 플랫폼 등 고객중심 경영 ▲글로벌 시장 확대 ▲조직문화 개선·내실경영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그룹 매출 2조원, 영업이익 2000억원 달성하고 2020년에는 매출 3조원, 영업이익 3000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박상길 기자



"잼의 여왕 '크리스틴페르베르' 맛보세요" 21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홍보모델들이 '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스틴페르베르'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크리스틴페르베르'를 무역센터점과 압구정본점, 목동점, 판교점 등 4개 점포 식품관에서 각 점별로 한달에 150개씩 총 600개를 1개당 3만원에 한정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동원F&B, 온라인 축산물 유통기업 '금천' 인수

동원F&B(대표 박성칠)가 온라인 축산물 유통전문기업 '금천' 인수를 통해 축산물 부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동원F&B는 21일 금천의 지분 100%를 약 4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천미트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금천은 지난해 매출 1160억 원, 영업이익 40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지난 1987년 창업해 약 30여 년간 국내산 우육과 돈육, 수입육 등 축산물을 유통해왔으며 대전, 안양, 담양 등 3곳에 자체 가공장 및 전국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다.

동원F&B는 축산물 유통전문기업인 금천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영업력, 물류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B2C 및 B2B 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풀무원, 파업 지입차주에게 불법 폭력행위 중단 호소

풀무원(대표 남승우)이 18일째 운송거부 파업을 하고 있는 화물 지입차주들에 대해 폭력 및 물류 봉쇄 행위를 중단하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1일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물류운영본부장은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차주 150명 가운데 일부인 화물연대 지입차주 40명이 수백 명의 외부세력까지 동원, 풀무원 1만5000여명 직원들과 자신들의 생계가 달린 일터를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명분없는 운송거부와 파괴적인 폭력행위를 멈추고 본업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풀무원 측에 따르면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충북 음성물류사업장 화물 지입차주 40명은 회사 측의 회사 CI를 지우고 백색 도색으로 운행해 달라는 호소를 거부한 채 18일째 대형 트럭으로 회사 정문을 수시로 봉쇄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정상적인 물류 운송을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현재까지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물 지입차주들은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대체 차량에 돌을 던지거나 새총 구슬탄을 운행중인 차량 운송기사에게 발사하고 보도블럭과 소화기, 죽봉 등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운송차량 20여 대가 파손되고 운송기사를 포함한 직원 8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풀무원 측의 설명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롯데百 임원진, 추석 배송서비스 1일 체험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 본사 임원진들이 추석 선물 배송에 직접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본사 소속 임원 23명이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배송 기간 5일중 하루를 정해 배송 활동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원들은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 영등포점, 분당점 강남점 등 5개 점포에 마련된 배송센터에서 배송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배송시 정장과 배지를 착용하고 선물과 함께 본인 명함을 같이 전달할 계획이다.



“올 추석 명절 선물로 ‘백화수복’ 어떠세요?”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추석을 맞아 백화수복 선물세트를 21일 선보였다. 백화수복은 100% 국산쌀로 만든 71년 전통의 대표 차례주로 저온 발효 공법을 사용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롯데주류 제공

한우·굴비 값 상승에 홍삼 매출 급증

추석을 앞두고 한우와 굴비 등의 선물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 선물로 홍삼이 뜨고 있다.

21일 KGC인삼공사가 지난 14~20일까지 정관장 매출 실적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루평균 매출금액이 67억원으로 2011~2014년의 같은 기간 하루 평균보다 4% 증가했다.

고가격대 제품 판매가 높아지면서 1인당 구매금액인 객단가도 지난해 대비 6% 상승한 46만원을 기록했다.



KGC인삼공사는 기존 명절 인기 선물인 한우와 굴비가 생산 및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홍삼은 가격이 고정적이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 것으로 분석했다.

홍삼은 구제역으로 한우 가격이 폭등했던 2010년에도 전년 추석 대비 10% 이상 성장한 바 있다.

아프리카 ‘어린이 희망의 급식소’ 설립

현대백화점그룹의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대표 오흥용)가 21일 업계 최초로 아프리카 레소토 공화국에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의 급식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해 오다 아프리카 현지의 열악한 아동급식실태를 전해 듣고 최신식 급식소 설치와 운영노하우 전수를 결정하고 지난 9월초부터 시설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레소토 하무추 지역에 위생적인 급수시설을 갖추고 냉장설비를 포함한 현대적인 주



방시설과 위생적인 식사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레소토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위생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텃밭 운영, 양계장 운영 등 농업 교육을 통해 급식소 운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열유리 밀폐용기 ‘락앤락오븐글라스’ 출시

락앤락(대표 김준일)이 21일 한가위 선물로 내열유리 밀폐용기 ‘락앤락오븐글라스’를 선보였다.

락앤락오븐글라스는 열에 강한 성질의 붕규산유리 소재로 한국산업표준의 내열유리제 식기(KS L 2424)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이다. 명절음식을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다른 접시에 옮겨 담을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에 바로 해동시켜 먹기에 편리하다.

뚜레쥬르, 精 담은 풍성한 선물세트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의 뚜레쥬르가 추석을 맞이해 정(精)을 담은 풍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제품은 최근 냉장 롤케이크의 인기에 힘입어 출시한 ‘순우유롤’과 특색 있는 맛으로 꾸준히 인



기 있는 ‘티라미수롤’, 녹차 등 세 가지 맛 롤케이크를 담은 ‘롤케이크 컬렉션’ 등이다. ‘뚜레쥬르 만주·모나카 세트’ 등도 출시했다.

추석 ‘연어캔 전쟁’ 치열

CJ제일제당, 연어선물세트 추석에만 매출 170억 목표

대상, 태국 업체와 제휴 선물세트용 연어캔 출시



/CJ제일제당 제공

추석을 앞두고 연어캔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통조림 대표주자인 참치의 후발주자인 연어는 2013년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첫해 시장 규모는 8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600억원대까지 커졌다. 올해는 시장 규모 1000억원을 넘어서며 4000억원대인 참치캔 시장을 맹추격하고 있다.

국내 연어캔 시장점유율 50%의 CJ제일제당은 ‘CJ알래스카연어’ 브랜드로 올 추석에만 17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 추석 매출 78억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CJ제일제당은 연어캔이 출시 3년 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만큼 연 매출 7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스팸에 버금가는 대표급 선물세트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연어캔 선물세트도 지난해 추석보다 2배 이상 늘린 총 48종을 선보였다. 전체 물량도 지난해 추석 53만4000세트, 올해 설 71만5000세트보다 대폭 늘린 130만세트를 준비했다.

구성도 중저가·실속형 선물세트부터 7만원대의 최고급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마련했다. 연어캔 단독 선물세트를 비롯해 스팸, 고급유 등과 복합 구성한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연어가 전통의 명절 선물세트의 구성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단독 제품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알래스카 연어를 스팸에 이은 주력 제품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청정원도 연어캔 마케팅에 가세했다. 대상은 태국 수산캔 제조사 유니코드퍼블릭과 제휴해 선물세트용 연어캔을 제작하고, 선물세트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주력 세트인 청정원 종합세트 10종에 연어캔을 넣었다.

대상 관계자는 “최근 연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 연어캔을 제작하게 됐다”며 “올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은 연어캔 등을 앞세워 사상 최고인 58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푸드도 연어캔 세트를 확대했다. 지난 설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엔네이처 연어’의 디자인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연어캔 단독 세트와 다양한 혼합 세트로 구성했다.

사조도 연어캔 선물세트를 내놓고 연어 레시피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판매 확대에 나섰다. 동원F&B는 참치캔과 연어캔을 함께 담은 복합세트 위주로 판매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어캔이 대중화되면서 고급스러운 선물로의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기존에 연어캔 등을 내놓지 않던 업체들도 앞다퉈 연어캔을 출시하고 명절 선물 세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마운티아, 업계 최초 동남아시아 진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쇼핑몰·백화점 입점

동진레저(대표 강태선)가 운영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티아는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중 처음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운티아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뿌리 지역의 쇼핑몰 두 곳에 입점했다.

1호점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대형 쇼핑 센터 ‘빈타로 자야 익스체인지 몰’ 센트로 백화점에 오픈했으며 2호점은 뿌리(Puri) 지역의 리포(Lippo) 몰 내 팍슨 백화점 3층에 있다.



마운티아 2호점 매장 전경. /마운티아 제공

마운티아는 11월 인도네시아 최대 휴양지 발리에 3호점을 오픈하며 내년 3월까지 자카르타와 메단 지역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LS네트웍스, 협력사 상품대금 161억원 선지급

추석전 자금부담 완화 위해

LS네트웍스(대표 김승동)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상품대금 161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의 일환이다.

이로써 LS네트웍스에 상품을 공급하는 120여 개 중소 협력사는 24일까지 상품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LS네트웍스는 협력사 상품대금 선지급이 원활한 명절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길기자

가벼운 깔창… 착화감 탁월

락포트, 한가위 선물 제안

구매고객 할인 혜택 제공 슈케어 세트 사은품 증정



토탈 모션 75MM 앵글 펌프스(왼쪽)과 스타일 퍼포즈 윙 팁 슈즈.

슈즈 브랜드 락포트(대표 장 미쉘 그라니에)가 한가위를 맞아 편안한 착화감을 자랑하는 선물하기에 제격인 신발을 내놨다. 할인 혜택(일부 매장 제외)과 함께 구매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슈케어 세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토탈 모션 75MM 앵글 펌프스는 스웨이드와 가죽 소재의 믹스매치가 멋스러운 제품이다. 고급 가죽을 사용해 부드러운 터치감과 발을 감싸주는 듯한 착화감을 준다.

또한 유연성과 함께 신발의 뒤틀림을 방지해 주며 ABS(고부가 합성수지) 소재의 힐과 벨벳과 같은 부드러운 안감은 한층 가볍고 편안한 워킹을 도와준다.

심플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소재로 세미 정장이나 H라인의 스커트와 매치해 시크한 오피스룩 연출이 가능하다.

젊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드레스화 스타일 퍼포즈 윙 팁 슈즈는 부드럽고 유연성이 뛰어난 가죽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제품이다.

EVA(가볍고 충격 흡수가 우수한 친환경 고분자 물질)소재의 경량 깔창을 사용해 각기 다른 발에도 최적화된 핏을 구현한다. 발뒤꿈치 부분에 아디프린 기능성 패드를 장착해 보행 시 전해지는 충격흡수와 쿠셔닝을 높여 보행을 편안하게 한다.

드레스포츠 럭스 에이프런 토 옥스포드 슈즈는 넉넉한 발 볼 공간과 고급 가죽 소재를 사용해 착화감이 좋은 제품이다. 아디프린 기술이 적용돼 발 뒤꿈치의 충격을 줄여줌과 동시에 다양한 지면에서 움직임을 민첩하게 한다.

밑창과 깔창은 비브람(VIBRAM)과 EVA 소재의 고무패드를 사용해 우수한 그립력을 자랑하며 가벼운 무게감으로 워킹 시 발과 다리의 피로를 덜어준다.

세븐 투 세븐 앨리 부티는 부드러운 터치감을 살린 가죽을 사용해 발을 감싸주는 듯한 피팅감이 뛰어나다.

해당 제품은 아디프린 기술이 결합돼 보행 시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텍스타일과 가죽을 혼용해 만든 나노 글라이드 소재의 안감은 마찰을 최소화한다. 또한 고무 소재 밑창은 탁월한 그립감과 쿠셔닝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패스 투 그레이트니스 미드 옥스포드 슈즈는 우수한 착화감은 물론 젊은 감각을 담은 패턴과 컬러로 세련된 멋을 선사한다. 아디프린 기술이 적용돼 보행 시 지면 충격을 흡수하고 발과 다리의 피로를 줄여준다.

문의 02-6137-5100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대상 '한강둔치'.

한강 야경,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다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한강둔치' 만장일치 대상 8년 만에 사진분야 첫 영예

서울지하철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제8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의 수상작 55점을 공개했다. 대상의 영광은 사진 부문 이강석씨의 '한강둔치'에 돌아갔다.

대상작 '한강둔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대변하는 '한강의 기적'을 한눈에 보여주는 작품이다. 상징성과 표현력, 작업의 완성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개최 이래 8년 만에 처음으로 사진 부문에서 대상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수상작은 ▲대상 이강석의 '한강둔치', ▲최우수상 정재훈의 '출근길', 이은지의 '철길', 최상귀의 '희망' ▲우수상 신수민의 '통인시장', 이혜성의 'The line of paradise 2', 김준수의 'DDP-차원문'이다.

수상작은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간 지하철 경복궁역의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관에서 전시된다. 온라인에서는 서울메트로 문화홈페이지(www.seoulmetro.co.kr/culture)를 통해 올해 수상작과 지난 수상작들을 전시한다.

시상식은 23일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관에서 개최되며,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각 200만원, 우수상 각 100만 원 등 총 1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서울메트로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미술대전에는 한국화, 서양화, 사진 3개 분야에서 총 283점이 접수됐다.

미술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3점, 특선 14점, 그리고 입선 34점 등 55점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은 신진작가들을 후원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열리고 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외국인 유랑단, 전통시장 홍보 나섰다

관광공사

19일 대구 서문시장서 스타트 200명 참가 주요 관광지 홍보


외국인 유랑단 홍보이벤트. /한국관광공사 제공

전통시장 국내외 홍보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외국인 유랑단 프로젝트'의 첫 행사가 19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관광공사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등 외국인 200여 명이 참가해 대구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다.

행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17시까지 서문시장 일대와 대구 주요관광지에서 열렸다. 주요 행사내용은 외국인 80여명이 함께한 대규모 플래시몹 오프닝 공연, 전국 4대 아리랑 메들리 유랑단 공연, 시장 상인과 함께 하는 인증샷 촬영이벤트, 길거리 악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채워졌다.

또한 외국인 유랑단은 서문시장 현장에서 각종 홍보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수행 중의 사진과 영상을 개인 SNS에 실시간으로 등재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을 전했다. 서문시장과 연계한 대구 도심관광 코스(의료선교박물관, 청라언덕, 3·1만세운동길)도 함께 돌아봤다.

/최치선 기자

'델몬트 콜드 비타민플러스' 패키지 리뉴얼

롯데칠성음료

과일 전면배치 기능성 강조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냉장유통 주스 '델몬트 콜드 비타민플러스' 2종의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제품 성분과 콘셉트 등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과일 본연의 신선한 맛과 향을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라벨·용기 디자인을 변경한 점이 특징이다.

리뉴얼 된 비타민플러스는 신선한 오렌지, 포도 이미지를 전면에 배치하고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유럽산 멀티비타민을 첨가한 프리미엄 주스임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로고를 넣어 기능성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비타민플러스 오렌지100'에는 유럽산 비타민C, B5, B6, E가 들어있다. '비타민플러스 포도100'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유럽산 비타민B5, B6, E가 함유돼 있다. 용기 입구의 크기도 기존 28㎜에서 38㎜로 30% 이상 넓어져 마시기도 따르기도 쉽게 했으며 뚜껑은 검정색을 적용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프리미엄 주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리뉴얼을 통해 다양한 기능 성분을 포함하고 무균 충전 시스템으로 생산해 과일 본연의 신선한 맛과 향이 살아있는 콜드 비타민플러스의 장점을 더욱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내달 1일부터 독감예방 백신 무료접종

고령층전용 백신 '플루아드' 국가필수접종지원사업 포함



10월 1일부터 MF59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65세 이상 고연령층전용 독감예방백신 '플루아드'(사진)를 보건소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게다.

이는 올해부터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이 확대돼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플루아드가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NIP)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 동안 플루아드는 병-의원에서만 접종이 가능했으나, 이번 NIP확대를 통해서 전국 보건소와 1만5000여 개의 지정된 병·의원에서도 플루아드를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백신 효과 지속 기간이 약 6개월이고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이전에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접종 받을 수 있는 지정된 의료기관은 보건소 혹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11월 극장서 만나요

배우 **정재영, 박보영**이 주연한 영화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가 오는 11월 개봉한다. 취직만 하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던 수습 도라희(박보영)가 시한폭탄 같은 상사 하재관(정재영)을 만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제 심사위원 위촉



배우 **장동건**이 제13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특별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영화제 경쟁부문 작품 중 국내 우수 연기자를 선정하는 자리다. 영화제는 오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열린다.

'바람이나 좀 쐐'로 1위



가수 **개리**가 21일 첫 정규앨범 '2002'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바람이나 좀 쐐'는 발표와 동시에 멜론·엠넷·올레·네이버 뮤직·소리바다·몽키 등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폐렴으로 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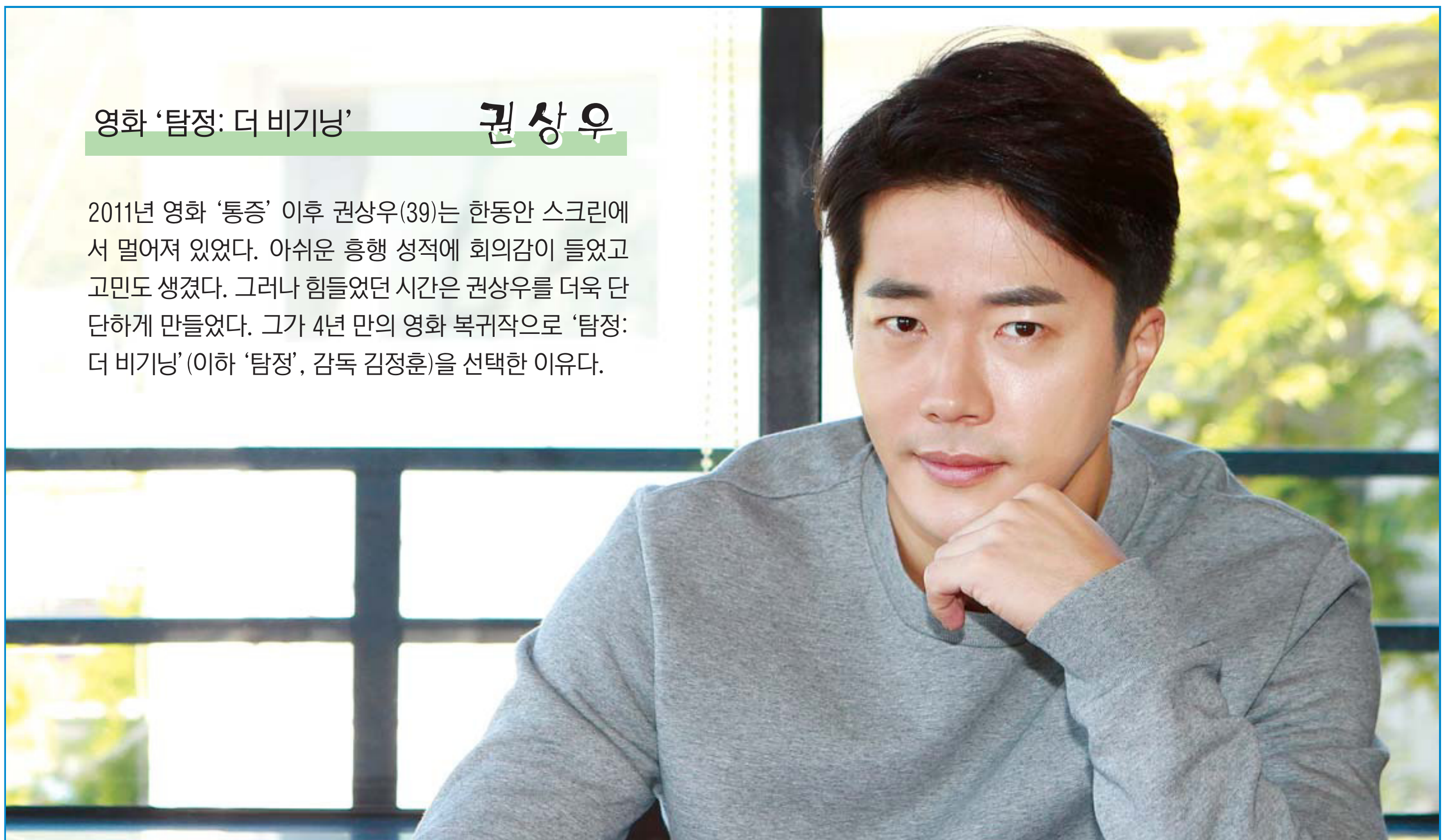


방송인 **정형돈**이 폐렴으로 입원해 방송 활동을 당분간 중단한다. 정형돈은 지난 18일 금요일에 입원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방송 녹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금촬영상 주연상



배우 **설경구**가 촬영감독이 뽑은 남자 주연 배우로 선정됐다. 설경구는 20일 김포 아라뱃길 여객 터미널 야외 무대에서 열린 제35회 황금촬영상 시상식에서 영화 '나의 독재자'로 최우수주연남우상을 수상했다.



영화 '탐정: 더 비기닝' **권상우**

2011년 영화 '통증' 이후 권상우(39)는 한동안 스크린에서 멀어져 있었다. 아쉬운 흥행 성적에 회의감이 들었고 고민도 생겼다. 그러나 힘들었던 시간은 권상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가 4년 만의 영화 복귀작으로 '탐정: 더 비기닝'(이하 '탐정', 감독 김정훈)을 선택한 이유다.

밉상이지만 사랑스러운 남편, 제 모습이죠

'탐정'은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추리물이다. 평범한 가장인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버디무비이기도 하다. 권상우는 형사를 꿈꿨으나 지금은 만화방을 운영하며 아내와 두 아이를 먹여 살리는 강대만 역을 맡았다. 실제로도 두 아이의 아빠이기에 강대만에 깊이 공감했다. "30~40대 배우의 과도기를 헤쳐 나갈 작품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다. 아내 손태영이 시나리오를 본 뒤 권상우에게 "자기가 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작품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탐정으로서 대만에게는 크게 끌리지 않았어요. 사건을 추리하는 과정은 어떤 배우가 해도 비슷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대만의 모습에는 여백이 많았어요. 실제 제 생활과도 비슷했고요. 밉상 같아도 사랑스러운 남편을 잘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는 추리물과 코미디의 경계를 넘나든다. 강대만과 강력반 형사 노태수(성동일)의 콤비 호흡이 웃음을 담당한다면, 이들이 힘을 합쳐 추리하는 과정은 긴장을 형성한다. 웃음과 긴장 모두 표현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을 법하다. 하지만 권상우는 "조금은 철없는, 그래서 인간적인 대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주



슬럼프 이후 선택한 첫 영화
두 아이 아빠 역할에 공감해
초심 돌아가 편안하게 연기
60대 돼도 위트있는 배우로

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최대한 힘을 빼고 연기했다.

"영(0)에서 시작하는 마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권상우의 '리즈 시절'을 내려놓고 연기했죠. 현장에서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권상우는 저런 역할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물론 헐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 연기했지만요(웃음)."

데뷔 초반 청춘스타로 유명세를 탔던 권상우는 최근 몇 년 동안 흥행에서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통증' 이후에는 슬럼프도 겪었다. 애정이 깊은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 지금껏 한 시나리오를 다시 받게 된다면 '통증'의 남순을 선택할 거예요. 멜로의 감성은 물론 남자의 아픔과 서툰 표현까지 있어 지금도 생각하면 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슬럼프가 없었다면 권상우가 '탐정'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연기를 보여줄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권상우니까 저렇게 연기하지 않겠어?'라는 말만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그의 말에는 힘든 시기를 견뎌낸 여유가 있었다. 물론 "흥행을 할 수 있다면 서운하지 않을 것"이라는 솔직함도 함께 말이다.

권상우는 "한 가지에 깊이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화에 깊이 빠져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제작자로 나설 계획도 하고 있다. 직접 쓴 시놉시스도 있고 시나리오도 개발한 상태다. 그는 "60대가 돼도 액션도 잘 하고 개성과 위트가 있는 배우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말할 때는 영락없는 '탐정' 속 강대만이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김혜수·조진웅·이제훈 '시그널'로 뭉친다

미제사건 다룬 형사극… 내년 1월 방영

배우 김혜수, 조진웅이 tvN 새 드라마 '시그널'의 주인공으로 최종 확정, 이제훈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21일 tvN 측은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금토드라마 '시그널'(극본 김은희, 연출 김원석)의 주연으로 김혜수와 조진웅의 캐스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제훈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다. 세 배우는 '시그널'로 케이블 드라마에 첫 출연하게 됐다.

'시그널'은 현재의 형사들과 과거의 형사가 낡은 무전기로 교감하며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내용의 수사 드라마다. '싸인' '유령' '쓰리데이즈'를 집필한 김은희 작가와 '미생' '성균관 스캔들'을 연출한 김원석 감독이 처음으로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김원석 감독은 "대본에 어울릴 만한 배우 캐스팅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세 배우 모두 대


김혜수


조진웅


이제훈

본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른 배우였다"며 "(캐스팅을) 상상만 했지 막상 현실이 되니 믿기 힘들 정도로 기쁘다. 한편 엄청난 책임감도 느낀다. 기대에 부응하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희철 기자 hhc@


FashionN
9월 24일 목요일 밤 9시 첫방송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난고 김병연의 시대정신·예술혼 추모

<蘭皐>

내달 9~11일 '김삿갓 문화제'
조선시대 영월과거대전 재현
전국휘호대회·학술심포지엄 등



해학의 길 걷기. /영월군 제공

강원도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난고(蘭皐) 김병연(1807~1863년) 선생의 시대정신과 문학예술혼을 추모하고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제18회 김삿갓 문화제'를 10월9일부터 11일까지 김삿갓 유적지(김삿갓면 와석리 소재)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가을바람처럼 오십시오, 국화향기처럼 반기겠습니다'다.

행사 전날인 10월8일에는 러시아 울란우데시 축하공연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저녁 7시에 있다.

9일에는 전국 일반·학생 백일장, 김삿갓 사생대회, 만화그리기 대회, 조선시대 영월과거대전(지방향시)재현이 펼쳐진다.

올해로 3회째인 조선시대 영월과거대전(지방향시)은 난고 김병연은 스무살이 되던 1826년(순조32년) 영월도호부 과거에 응시해 조부를 탄핵한 글로 장원을 한 기록을 바탕으로 했다.

탄핵한 김익순이 조부임을 알고 천륜을 어긴 죄인이라 스스로 단죄하고 방랑의 길을 시작한 전통적인 지방과거제를 현대에 재현한다. 왜 방랑시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조선시대 과거제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전달한다.

10일에는 김삿갓 묘역 일원에서 길놀이, 제향, 헌다례, 추모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제5회 전국 시낭송경연대회, 제2회 조선시대 영월과거대전 장원시 시비제막, 김삿갓의 시대정신과 문학혼을 재조명하는 명사와 군민이 참여하는 김삿갓 해학의 길 걷기가 김삿갓문학관에서 김삿갓주거지까지 이어진다.

오후 4시40분부터 시작되는 개막식에는 제11회 김삿갓 문학상시상, 제16회 전국민화공모전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개막식 후 제11회 김삿갓문학상 시비제막이 진행된다.

11일에는 전국휘호대회, 김삿갓 학술심포지엄, 강원도 등반대회, MTB 축하라이딩과 전통민속주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행사기간 중 메인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9일 제천시국악협회의 전통문화공연(오후 2시~3시30분)에 이어 개막식 날인 10일에는 식전공연인 여섯줄넋두리에 이어 정수라의 개막공연(오후 3시40분~4시30분)이 예정됐다.

마지막날인 11일에는 피날레 공연으로 김범룡과 통키타 향연, 품바공연이 오후 4시부커 한시간 반 동안 펼쳐진다.

또한 김삿갓 문학관 광장에서는 행사기간 중 시화, 한국화, 서각, 수석 전시회가 열린다. 인절미 떡메치기, 가훈써주기, 향토음식 먹거리촌, 농산물홍보·판매센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만날 수 있다.

/이예진 기자 gree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체육대회 나선 프로게이머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0시50분

'서인천 고등학교' 편 마지막 이야기다. 이과 브레인 김정훈은 국어 시간에 감수성이 가득한 시를 써 문학소년으로 등극한다. 전학생 추성훈은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의 출출한 배를 채워주기 위해 매점에서 골든벨을 울린다. 홍진호는 신수지와 함께 '반 대항 체육대회'에 나선다.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선수 출신 신수지의 유연성에 홍진호는 신체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어도 남다른 승부욕을 발휘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15분

김국진은 생애 첫 요리에 도전해 박세준과 함께 강수지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강수지는 김국진의 첫 요리를 응원하면서 박세준의 질투심을 유발한다.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고기용 만능 소스를 가지고 추석 단골메뉴인 갈비찜 정복에 나선다. 소스 하나로 간단하게 만드는 갈비찜에 뜯는 맛이 일품인 LA갈비 등 다양한 갈비찜 레시피를 선보인다.



◆ tvN '현장토크쇼-택시'

오후 8시40분

배우 조민기의 아내 김선진이 출연한다. 등록금 낼 돈도 없던 가난한 신인 배우였던 남편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일 (화)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홈스토리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1:55 바른말 고운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1 대 100 (재)	05:00 MBC 뉴스 05:10 특선 어부의 만찬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앙코르 MBC 다큐스페셜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충전 힐링 라이프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식톡락 테라피 힐링의 품격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재) 10:15 마녀사냥 (재) 11:45 냉장고를 부탁해 (재)	05:50 천기누설 스페셜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00 명단공개 (재) 06:4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20 집밥 백선생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문제적 남자 (재)	05:00 큐티 06:00 놀랍지 아니한가 06:30 그림있는 집 07:00 권은순의 리빙앤스타일 07:30 야무진 공방 (재) 08:00 디자인 매거진 룸 S2 09: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09:30 자신만만 인테리어 (재) 10:00 스타 뉴스 11:00 그림있는 집 S2 11:30 어반 레전드 (재)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4:00 2015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야생일기 (재) 16:20 TV, 책을 보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특선다큐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3: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14:05 내꺼야 폴록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00 MBC 뉴스 15:10 꼬마돌 도도 15:40 통일전망대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재)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프로야구 중계석 (재)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로봇 트레인	13:05 비정상회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0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3:2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4:40 두번째 스무살 (재) 16:00 두번째 스무살 (재) 17:20 명단공개 (재)	12: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12:30 플리마켓 리폼대작전 13:00 싱글 생활백서 (재) 14:00 이색적인 이사 (재) 14:30 우리집을 살려줘 (재) 15: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15:30 적중창업 16: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16:30 내 남자의 목공 (재) 17:00 와타나베의 건물탐방 S2·3
18:00 6시 내고향 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이웃집 찰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시사기획 창 23:00 KBS 뉴스라인 23: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24:35 독립영화관 <우리가족>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1 대 100 22:00 별난 며느리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30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정 23:10 PD수첩 24:05 MBC 뉴스 24 24:15 MBC 100분 토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SBS 뉴스토리 22:00 미세스캅 23:15 불타는 청춘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내 나이가 어때서 22:5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4:15 비정상회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50 휴먼다큐 사노라면 23:00 엄지의 제왕 24:40 엄지의 제왕 (재)	18:20 집밥 백선생 (재) 19:40 오 마이 갓 20:40 현장토크쇼 TAXI 21:40 집밥 백선생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현장토크쇼 TAXI (재)	18: 00 녹차식톡 19:30 우리집을 살려줘 20:00 자신만만 인테리어 20:30 싱글 생활백서 21:00 야무진 공방 21:30 그림있는 집 S2 (재) 22:30 내 남자의 목공 23:00 이색적인 이사 (재) 24: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재) 24:30 DIY 프로젝트 (재)

아우크스부르크, 韓 3인방 최초 동시 출격


구자철


홍정호

구자철·홍정호·지동원 소속팀 리그 첫승 견인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26), 홍정호(26), 지동원(24) 등 '한국인 3인방'이 최초로 동시에 출격해 올 시즌 팀의 첫승을 견인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21일(한국시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WWK 아레나에서 열린 하노버와의 2015-2016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5라운드 홈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29분 만에 알렉산더 에스바인이 골망을 가르며 기선을 잡았다. 2분 뒤 베르너 좀바르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파울 베르에흐가 키커로 나서 추가골을 뽑아내 2골 차 완승을 거뒀다.

이날 구자철, 홍정호, 지동원은 나란히 한 경기에 출전했다. 분데스리가에서 한국인 선수 3명이 한 팀 소속으로 동시에 그라운드를 밟은 것은 처음이다.

맏형 구자철은 자신의 주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한 단계 내려선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임에도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는 전담 키커로 나섰다. 전반 18분에는 도미닉 코어에게 연결한 코너킥이 옆그물을 갈라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에는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상대 진영을 누볐다.

지난 4라운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직전 몸 상태 이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홍정호도 이날 선발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중앙 수비수로 나서 안정적으로 후방을 지키며 아우크스부르크의 무실점 승리를 견인했다.

막내 지동원은 후반 24분 교체 투입됐다.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추가골 사냥을 노렸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감독에게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음을 제대로 어필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한국인 3인방의 활약 속에 5경기 만에 첫 승리를 따냈다. 승점 4점(1승1무3패)이 됐지만 순위는 변화 없이 14위를 유지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추신수, 볼넷으로 19경기 연속 출루

타율 소폭 하락·볼넷 68개 0.372로 출루율 소폭 상승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안타 없이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무안타에 볼넷 2개를 얻었다. 시즌 타율은 0.272(504타수 137안타)로 약간 내려갔다. 하지만 19경기 연속 출루 행진 덕분에 출루율은 0.372로 소폭 올랐다.

추신수는 1회 2루 땅볼로 물러난 뒤 3회와 5회 거푸 볼넷을 얻어 나갔다. 시즌 볼넷은 68개로 늘었다. 그러나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득점의 기회는 얻지 못했다. 7회에는 3루수 땅볼로 타격을 마무리하면서 4경기 연속 멀티히트 행진도 종료됐다.

텍사스는 단 4안타 빈공에 그치면서 2-9로 완패해 이날 막을 내린 홈 10연전을 7승 3패로 마감했다.

텍사스는 22일부터 오클랜드, 휴스턴과 정규리그 마지막 원정 6연전을 치른다. /하희철 기자


손흥민이 20일(한국시간) 영국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손흥민 '맨오브더매치' 선정

英언론, 평점 8점 부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끈 손흥민(23·토트넘)이 영국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21일(한국시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전날 열린 토트넘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정규리그 첫 번째 골을 기록한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부여했다.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다. 또한 손흥민을 맨오브더매치(MOM,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수 차례 선방을 선보인 토트넘 골키퍼 휴고 요리스(29)가 유일하게 7점을 받아 손흥민의 뒤를 이었다.

영국 축구통계전문업체인 '후스코어드닷컴'도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인 8.23점을 부여해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지난달 28일 무려 2190만 파운드(약 396억원)의 이적료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이적 후 3경기 만에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승골에 힘입어 크리스털 팰리스에 1-0 승리를 거뒀다. 승점 6점이 되면서 리그 9위로 올라섰다. /하희철 기자

메시, 페널티킥 실축에도 2골 1도움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21일(한국시간) 스페인 캄프누에서 열린 2015-2016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4라운드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드리블 돌파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바르셀로나, 4연승 행진 레알 마드리드 제쳐 1위로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킥을 놓치고도 멀티골을 기록하며 소속팀 FC바르셀로나의 4연승을 이끌었다.

바르셀로나는 21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레반테와의 2015-2016 정규리그 4라운드 홈경기에서 4-1로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개막전부터 4연승을 기록, 승점 12를 따내며 레알 마드리드(3승1무·승점 10)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바르셀로나의 득점은 모두 후반전에 나왔다. 후반 5분 메시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마르크 바르트라가 선제골로 만들었다. 후반 11분에는 네이마르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추가골을 넣었다.

네이마르는 후반 16분에도 페널티킥을 유도해 메시의 추가골 기회를 만들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21분 레반테에 추격골을 내줬으나 메시가 후반 종료 직전 중원에서부터 단독 드리블 한 뒤 수비수 4명을 제치고 왼발 슈팅으로 4번째 골을 넣어 승리를 거뒀다.

메시는 후반 30분 페널티킥을 유도하면서 직접 키커로 나섰지만 실축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2골을 합쳐 정규리그 3골을 기록한 메시는 득점선두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5골)와의 차이를 2골로 줄이면서 득점랭킹 공동 3위에 랭크됐다. /하희철 기자

제이슨 데이, PGA 우승… 세계 랭킹 1위 등극



제이슨 데이(호주·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우승하면서 시즌 5승과 함께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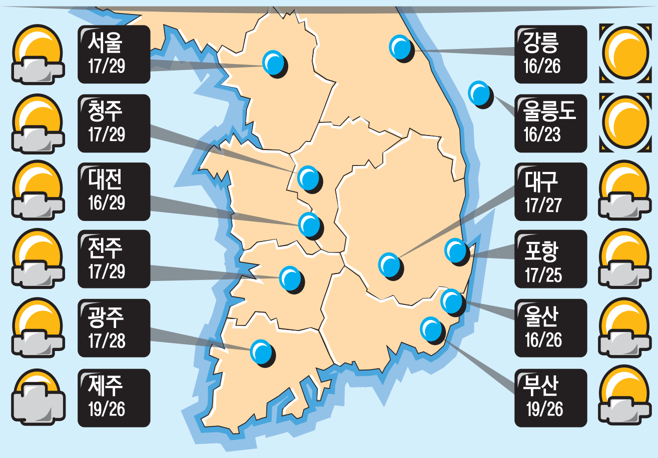
데이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레이크포리스트의 콘웨이 팜스 골프클럽(파71·7251야드)에서 열린 BMW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였다. 6타차 선두로 여유있게 4라운드를 시작한 데이는 합계 22언더파 262타를 적어내 대니얼 버거(미국·16언더파 268타)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승상금은 148만5000 달러(약 17억2000만원)다.

데이는 이번 우승으로 새로 발표되는 랭킹에서 1위에 오르게 됐다. /하희철 기자

날씨

9/22 화 일출시각 06:19 일몰시각 18:3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7	
5		1		3				
	4	7	1					
6			3	7			2	4
7	8						9	5
4	1			9	2			8
					5	4	8	
				8		9		6
	6		4					

5						9	4	
			8		4	5		1
4	1				6		2	8
				6	8			
1	7						8	3
			7	4				
9	5		4				3	6
6		4	1		2			
	2	7						4

스도쿠 정답

8	3	6	9	2	4	5	7	1
5	2	1	8	3	7	6	4	9
9	4	7	1	5	6	8	3	2
6	9	5	3	7	8	1	2	4
7	8	2	6	4	1	3	9	5
4	1	3	5	9	2	7	6	8
1	7	9	2	6	5	4	8	3
2	5	4	7	8	3	9	1	6
3	6	8	4	1	9	2	5	7

5	6	8	2	1	3	9	4	7
7	3	2	8	9	4	5	6	1
4	1	9	5	7	6	3	2	8
2	4	5	3	6	8	1	7	9
1	7	6	9	2	5	4	8	3
8	9	3	7	4	1	6	5	2
9	5	1	4	8	7	2	3	6
6	8	4	1	3	2	7	9	5
3	2	7	6	5	9	8	1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couldn't even recognize her!

A: Guess who I met today.

B: Who?

A: Joohee from high school.

B: I haven't seen her in years. How is she?

A: **I couldn't even recognize her.**

B: She looks that different???

A: She lost soooo much weight.
She weighs half of what she did in HS.

B: Really?

A: On top of that, she underwent multiple pl astic surgeries.

B: I'm speechless. :-X

A: Thing is…

B: ???

A: She seemed a little full of herself.

B: Oh, well…

걔 알아보지도 못하겠더라!

A: 내가 오늘 누굴 봤게.

B: 누군데?

A: 고등학교 때 친구인 주희야.

B: 걔 못본 지 몇 년 됐네. 어떻게 지낸대?

A: **걔 알아보지도 못하겠더라.**

B: 그렇게 달라졌어???

A: 살을 너~무 뺀 거 있지. 고딩 때 대비 반쪽 됐어.

B: 구래?

A: 게다가 성형 수술도 잔뜩 했어.

B: 헐.

A: 문젠…

B: ???

A: 걔가 좀 거만해 보이더라.

B: 뜨아…

글로벌어학원 Global Language Institute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경제력이 부족해도 결혼할 수 있을까요?
상업·부동산 적절… 결혼하면 부자 될 사주

king2 남자 78년 5월 24일 양력 18시

Q 안녕하세요? 메트로 애독자 입니다.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자격증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력이 생각보다 만족 스럽지가 못합니다.

결혼해 쪼들리다 보면 그 생활이 행복 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섣불리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처녀를 대려다 놓고 고생을 시키는 것이 마음에 안차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미루는 저를 보고 지인들 말로는 일단은 결혼을 해 놓고 거기서부터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책임성 없는 일이라고 보고 결혼을 미뤄 왔는데 과연 제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나요 ?

A 물론 인생은 개척하기 나름이라 하는데 더 자세히는 사주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사주의 격국(格局)을 따져서 판단하는데 예측하기 힘든 풍운의 조화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순환되며 찾아오는 길흉화복(吉凶禍福)의 명운이 있습니다.

병화(丙火)일간이 사월(巳月)에 태어났으며 화기가 센 신 강한 사주입니다. 사주지지 금국(金局)을 이뤄 건록용재격(建綠用財格)사주로 상업이나 부동산에도 좋은 기운이며 지금보다는 결혼과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남자사주에서 결혼은 재물인 재성(財星)을 취한 것이 되므로 재(財)가 추가 되는 셈입니다. 비겁(比劫;나와 동급의 오행)이 왕(旺)하니 재물(財物)을 하나 놓고 다투는 군겁쟁재(群劫争財)가 될 수 있으나 운에서 재물이 왕성하여 발복하게 됩니다.

신념을 갖고 결혼을 하십시오. 2015년 보다는 2016년에 양띠생과 연분이 있으며 음력 3·4·7월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어난 생일에 백호(白虎)로 나쁜 운이 작용 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신상에 횡액(橫厄)이 염려되고 낙상(落傷)의 사고도 주의 할 일이니 평생 음주운전은 유의를 하십시오.

성정은 '집을 지키는 개'와 같은 형상으로 책임감이 매우 강하고 희로애락의 감정 표출이 선명하여 금세 화를 냈다가 풀어지는 등의 감정의 기복이나 변덕스러운 성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주팔자 내에 일점 수기(水氣)가 없어 편고(偏枯)하므로 지나치게 자기위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독단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주변의 비난을 사기도 하고 독종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니 자신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이나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2일 (음 8월 10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할 운입니다. **60년생** 집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72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84년생** 취업을 하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세요.

소 **49년생**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61년생** 옛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3년생**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85년생**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호랑이 **50년생**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62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됩니다. **74년생**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86년생**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 합니다.

토끼 **51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3년생** 운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75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87년생** 술을 조심하세요.

용 **52년생** 곧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반드시 뜻을 이룰 것입니다. **64년생**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76년생** 재물운이 좋습니다. **88년생** 사소한 계획도 성공합니다.

뱀 **53년생** 주변 사람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합니다. **65년생**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77년생**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봅니다. **89년생** 결실이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말 **54년생**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66년생** 일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78년생**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양 **55년생** 일이 꼬여 답답합니다. **67년생** 심신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9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91년생**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곳을 찾다 보면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원숭이 **56년생**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지겠습니다. **68년생**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룹니다. **80년생**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마세요. **92년생** 짧은 시간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닭 **57년생** 주위 여건이 귀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69년생** 일에 조금씩의 발전은 있겠습니다. **81년생** 전전긍긍하면서 날을 보냅니다. **93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됩니다.

개 **58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0년생**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함이 좋습니다. **82년생**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94년생** 혼자의 힘으론 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59년생** 공연한 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겠습니다. **71년생** 무리하게 큰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83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95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integrity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미국사람들은 integrity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무언가 진실되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He is a man of integrity"라고 표현한다.한국에서는 integrity라는 단어를 진실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진실성'이라는 단어가 integrity가 가지는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 생활을 오래한 임병덕 미국변호사는 그의 책 '페어플레이'에서 integrit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서양 사회에서는 비즈니스와 법조계는 물론, 심지어 정치에서도 'integrity'라는 개념은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다루어진다.

매리엄-웹스터 사전에는 'integrity'를 'firm adherence to a code of moral [or artistic] value (도덕적 [예술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고수함)'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integrity'의 본래 개념은 '어떤 가치를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참되고 바른 성질이나 품성을 바탕으로 훌륭한 가치를 고수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진실성' 또는 '투명성'이라는 단어는 integrity가 가지는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직성을 고수하려는 성향, 거짓을 통해 부당하고 구차한 이득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integrity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integrity에 대한 그의 견해인 것 같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나라사람들보다 덜 정직한 것은 아니다. 개개인을 놓고 볼 때도 어떤 사람이 대체적으로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도 그가 항상 정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정직하거나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딱히 한국 사람이 정직성과 진실성 그리고 투명성에 있어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무언가 특별한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즉 한국에서는 왠지 정직하면 손해 볼 것 같은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정직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한국사람들은 정직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된다. 그리고 정직성을 고수하려는 의지도 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한국의 묘한 분위기를 외국인들은 알아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사회를 경험하고 한국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사람들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외국인들과도 신뢰를 주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상은 아쉬운 대목이다. 오랜 세월 동안 국제거래를 해온 어떤 사업가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김변호사, 사업은 heart to heart, 즉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사업이나 거래를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간 관계에 진정성과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체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양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integrity'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社說

연극 같았던 문재인의 '재신임' 소동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야당의 혼돈이 일단락됐다. 20일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철회를 요청한 당무위원회·의원총회연석회의는 '당대표 재신임 철회를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문 대표는 21일 이를 받아들였다. 문 대표가 스스로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으니 야당이 표류하게 된 주요 원인 하나가 해소됐고, 문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받은 셈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당은 많은 상처를 노출했다.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 의사를 표명한 후 야당 내의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격화됐다. 당혁신위가 작성한 공천개혁안도 비주류가 불참한 가운데 박수로 통과됐고, 민주당 60주년 행사도 역시 반쪽행사로 열렸다. 새정치연합의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도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파행을 면치 못했다.

문 대표는 재신임을 둘러싼 소동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을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사실 문 대표는 총선참패 등 지도력 부재로 말미암아 스스로 흔들린 측면이 강하다. 이번 재신임 소동도 문 대표가 비판을 차단하는 '셀프 재신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연극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더욱이 재신임 문제를 국정감사라는 중요행사를 앞두고 제기했으니 시기도 잘못됐다.

그러는 사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날카로운 비판은 사실상 사라졌다. 정부 여당은 '해고하기 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동5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상황을 주도했다. 노동5법 개정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슈는 이미 정부여당이 선점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을 비롯한 쟁점들은 실종되고 국정감사도 무기력해졌다.

이제 만신창이가 된 야당이 노동법 개정이나 재벌개혁 등의 현안에 대해 힘 있게 대응할지 불확실하다. 야당이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것 같지만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연극 같은 '셀프 재신임' 소동은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만 불행해진다.

車의 고장 독일에서 만난 현대차 매트릭스



기자 수첩
이 정 필
<산업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다녀왔다. 4일간의 일정 중에 시내를 달리는 현대자동차를 본 것은 매트릭스(국내명 라비타) 1대뿐이었다.

벤츠가 택시로 다니는 곳이지만, 현대차가 안 보였다.

자동차의 나라에 국산차가 적다는 아쉬움은 모터쇼 현장에서 더욱 컸다.

현지 업체들은 콘셉트카를 주행하고 15분 충전에 500km 이상을 주행하는 전기차의 미래를 눈앞에 펼쳐보였다.

반면 현대차의 발표는 현실감이 떨어졌다.

경주용차 모습을 한 브랜드 N을 선보인 현대차는 2년 후 독자 개발한 고성능 양산차를 출시한다고 했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수소차 양산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한 만큼, 기술 경쟁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가 대세인 와중에 현대차의 이같은 '마이웨이' 행보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실정은 걱정이 더하다.

누수와 화재, 에어백 등 갖가지 문제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실시한 내수·수출용 차량의 충돌테스트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지만 한편에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제네시스 4행시 짓기 이벤트에선 비판적인 내용이 상위권을 휩쓰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신뢰를 잃은 것일까.

일흔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평생 현대차를 타셨다. 이들 세대와 함께 현대차는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런데 지금의 소비층이 이상해진 것인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그동안의 내수 역차별 부품 사용과 판매조건, 보증기간을 알게 된 것이다. 문제점이 드러나도 유독 자국에서 당당한 갑기업의 태도에 분노하는 것이다.

과실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대신 선택한 법적 대응은 안티팬을 더욱 양산하는 양상이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현 정권에서 한전부지에 10조원을 쾌척하고, 창조경제 퍼포먼스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탑티어 업체들의 방향과 동떨어져 외딴길로 전락할지 걱정이 앞선다.

현대차가 오로지 성능에 대한 신뢰로, 차량의 퍼포먼스로 독일차와 나란히 달리는 날이 오길 바란다.

빚더미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활법률

몇년 전부터 김모씨는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5년 동안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김씨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빚더미를 청산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일단 이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즉 채무 원금 합계가 1000만원이 넘어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의 심사를 통해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 직원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먼저 파악하게 된다.

김재주(법무법인 기여) 변호사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빚에 허덕이는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인사

◇제주CBS ▷보도제작국장 송형관
◇IBK투자증권 △상무 보임▷IB사업부문장 겸 구조화금융본부장 유식열 ▷종합금융본부장 이동구
◇청주시 △5급 ▷김정희 도로시설과 △6급 ▷유동선 상생협력담당관 ▷현경민 감사관 ▷이수희 인사담당관 ▷윤오복 예산과 ▷이윤겸 정책기획과 ▷유성남 행정지원과 ▷김구환 행정지원과 ▷김구환 행정지원과 ▷경민화 복지정책과 ▷하태종 인재양성과 ▷엄영문 체육진흥과 ▷조영갑 복지정책과 ▷안옥근 상당구청 보건정책과 ▷최혜영 청원보건소 ▷정광호 감사관 ▷박인수 도시개발과

부고

▲우윤제씨 별세, 윤종규(전 동아일보 기자·전 두산중공업 홍보실장)·종님씨 모친상, 윤형필(충남도 공무원교육원)·상필(티스코 대표)씨 조모상, 김의환(기프팅스 대표)씨 장모상 = 2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2-2258-5940



순하디
순하다
우리들의 가벼운 I 순하리 처음처럼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순하리
처음
처럼
처음처럼 부드럽게
유자처럼 상큼하게
유자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